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초등학교
서예교육
실태
분석

송원준

2014년

석사학위논문

초등학교 서예교육 실태 분석

An Analysis on Reality of
Calligraphy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송 원 준

2014년 6월

석사학위논문

초등학교 서예교육 실태 분석

An Analysis on Reality of
Calligraphy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송 원 준

2014년 6월

초등학교 서예교육 실태 분석

An Analysis on Reality of
Calligraphy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지도교수 임 춘 배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송 원 준

2014년 6월

송원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년 6월

목 차

국문 초록	i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내용	3
3. 연구의 제한점	3
II. 본론	4
1. 서예의 이론적 배경	4
2. 초등학교 미술교과 서예내용 분석	18
3. 초등서예교육 실태 분석	33
III. 결론 및 제언	69
참고 문헌	73
ABSTRACT	76
부 록	79

표 목 차

〈표 II-1〉 3~4학년 교육부 국정교과서	18
〈표 II-2〉 3~4학년 교육부 검정교과서(교학사)	19
〈표 II-3〉 3~4학년 교육부 검정교과서(금성)	20
〈표 II-4〉 3~4학년 교육부 검정교과서(두산)	21
〈표 II-5〉 3~4학년 교육부 검정교과서(천재)	22
〈표 II-6〉 2007,2009개정교육과정 서제 및 차시 비교	23
〈표 II-7〉 5~6학년 교육부 검정교과서(교학사)	26
〈표 II-8〉 5~6학년 교육부 검정교과서(금성)	27
〈표 II-9〉 5~6학년 교육부 검정교과서(두산)	28
〈표 II-10〉 5~6학년 교육부 검정교과서(천재)	29
〈표 II-11〉 2007,2009개정교육과정 서제 및 차시 비교	30
〈표 II-12〉 서예교육의 필요성	34
〈표 II-13〉 서예교육의 필요성(교육경력별)	34
〈표 II-14〉 서예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점	35
〈표 II-15〉 한문서예 포함에 대한 생각	36
〈표 II-16〉 한문서예 포함에 대한 생각(교육경력별)	36
〈표 II-17〉 서예지도에서 가장 힘든 점	37
〈표 II-18〉 서예지도에서 가장 힘든 점(교육경력별)	37
〈표 II-19〉 학생들이 서예를 기피하는 이유에 대한 생각	38
〈표 II-20〉 학생들이 서예를 기피하는 이유에 대한 생각(교육경력별)	38
〈표 II-21〉 서예지도가 이루어지는 장소	39
〈표 II-22〉 서예교육 지원 중 가장 시급한 것	40
〈표 II-23〉 서예교육 지원 중 가장 시급한 것(교육경력별)	41
〈표 II-24〉 서예학습 지도시간 범위	42
〈표 II-25〉 서예학습 지도시간 범위(교육경력별)	43
〈표 II-26〉 미술과 교육과정 내 서예배정에 대한 생각	44
〈표 II-27〉 미술과 교육과정 내 서예배정에 대한 생각(교육경력별)	45

〈표 II-28〉 서예지도시 활용하는 학습자료	46
〈표 II-29〉 서예지도시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자료	47
〈표 II-30〉 서예작품을 평가할 때 비중을 두는 관점	48
〈표 II-31〉 서예작품을 평가할 때 비중을 두는 관점(교육경력별)	48
〈표 II-32〉 교사의 판본체와 궁체에 대한 이해도	49
〈표 II-33〉 교사의 판본체와 궁체에 대한 이해도(교육경력별)	49
〈표 II-34〉 서예교육을 받아 본 경험	50
〈표 II-35〉 서예교육을 받아 본 경험(교육경력별)	50
〈표 II-36〉 학교수업 외 서예교육 기회가 없었던 이유	51
〈표 II-37〉 학교수업 외 서예교육 기회가 없었던 이유(교육경력별)	51
〈표 II-38〉 교육과정별 서예배당시간 및 비율	53
〈표 II-39〉 서예학습의 필요성	55
〈표 II-40〉 서예학습의 필요성(학년별)	55
〈표 II-41〉 서예를 하면 좋은 점	56
〈표 II-42〉 서예학습 필요성 인식과 서예학습 희망도	57
〈표 II-43〉 미술과 영역 중 가장 좋아하는 영역	58
〈표 II-44〉 미술과 영역 중 가장 좋아하는 영역(학년별)	58
〈표 II-45〉 서예학습시간 선호도	59
〈표 II-46〉 서예학습시간 선호도(학년별 변화)	59
〈표 II-47〉 서예학습시간을 좋아하는 이유	60
〈표 II-48〉 서예학습시간을 싫어하는 이유	61
〈표 II-49〉 서예를 배울 기회	62
〈표 II-50〉 서예학원 수강 경험	63
〈표 II-51〉 판본체에 대한 이해도	64
〈표 II-52〉 판본체에 대한 이해도(학년별)	64
〈표 II-53〉 궁체에 대한 이해도	65
〈표 II-54〉 궁체에 대한 이해도(학년별)	65
〈표 II-55〉 서예작품 감상기회	66

그림 목 차

[그림 II-1] 김생 송하빈객귀월	9
[그림 II-2] 안평대군 재송업상좌귀남서	9
[그림 II-3] 한석봉 석봉천자문	9
[그림 II-4] 김정희 예서대련	9
[그림 II-5] 전서 갑골문	10
[그림 II-6] 전서 석고문(대전)	10
[그림 II-7] 전서 태산각석(소전)	10
[그림 II-8] 예서 을영비	11
[그림 II-9] 해서 장맹용비	11
[그림 II-10] 행서 난정서	12
[그림 II-11] 초서 자서첩	12
[그림 II-12] 한문서체 비교	12
[그림 II-13] 훈민정음 해례본	13
[그림 II-14] 용비어천가 제1장	13
[그림 II-15] 분류두공부시(언해) 권21	13
[그림 II-16] 남계연담 조선시대	14
[그림 II-17] 낙성비룡 조선시대	14
[그림 II-18] 봉서 조선시대	14
[그림 II-19] 숙향전 조선시대	14
[그림 II-20] 장익성전 1장 조선시대	14
[그림 II-21] 김정희 서간 조선시대	14

국 문 초 록

초등학교 서예교육 실태분석

송 원 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임 춘 배

서예는 예로부터 자기수양의 예술인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예절을 중시하는 예술이다. 서예는 우리 조상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예술로서, 우리는 서예를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또한, 먹을 갈고 정성껏 쓰는 과정에서 차분함과 인내심, 성실성을 기쁨으로써 훌륭한 인성교육으로서의 교육적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고도의 집중력을 통해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며, 쓰는 사람의 역량과 심리상태, 인격에 의하여 자신의 내면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이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서예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전체 미술교과 시간 중 서예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7차 교육과정 11.7%, 2007개정교육과정 7.3%, 2009개정교육과정 6.6%로서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 현 교육과정에서는 학년 당 연간 미술시간 68시간 중에서 겨우 5시간 정도만이 서예교육에 배당된 것이다.

이러한 서예교육 위상의 변화는 사회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서예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서예학원에서 서예를 배울 기회와 서예작품 전시회에서 서예를 감상할 기회는 줄어들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서예과의 폐과 논란이 일고 있는 등 서예를 접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서예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학교교육이 유일하다. 우리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서예의 필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서예의 여러 가지 장점과 교육적 의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현장에서의 서예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연구자는 서예에 대한 문헌연구와,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서예교육 실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현 교육현실 속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첫째, 초등학교 교육과정 서예시간을 증배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수업 시간을 통해 서예를 접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이 개정될수록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1년에 5시간을 학습하여 실력을 향상하기 어려움은 물론, 수업을 다양화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둘째, 한문서예의 도입이다. 오랜 역사의 한문서예를 통해 한자습득은 물론, 한자를 아름답게 표현함으로써 심미안을 형성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사가 서예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막상 서예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교사들의 관심으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시도와 열정이 서예교육 활성화의 열쇠이다.

셋째, 전통서예와 캘리그래피의 만남이다. 최근, 영화 포스터는 물론이고 책표지, 각종 상품의 제품명까지 섭렵하고 있는 캘리그래피를 적절히 융합해야 한다. 캘리그래피처럼 먹과 붓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유발은 물론, 창의성 교육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특별실을 지원해야 한다. 특별실 설치는 교사와 학생들이 서예학습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인 ‘서예재료의 준비 및 뒷정리의 어려움’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글씨 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표현의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서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수 있다.

다섯째, 심미안을 기를 수 있는 서예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 기능이나 정서순화의 기능, 바른 글씨연습의 효과만 추구한다면 서예가 굳이 미술과에 편제될 이유가 없다. 서예가 미술과에 편제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현 2009개정교육과정 미술과의 목표인 ‘미적

감수성과 직관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삶을 창의적으로 향유하며 미술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연구자는 초등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서예교육을 위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서예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언해 보았다. 여러 가지 미흡함이 많은 연구지만 본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서예교육의 활성화는 물론, 서예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I. 서 론

1. 연구목적

요즘 아이들은 매우 감각적이며 즉흥적이다. 한 가지에 오래 집중하기 어려워며, 더 재미있고 자극적인 것을 원한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듣기 능력 또한 부족하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변화의 엄청난 속도는 사람과 사람의 소통의 기회를 줄어뜨리게 하였고 오히려 스마트폰 등 기계와의 소통에 익숙해지게 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계를 통한 글자에는 익숙한 반면, 아날로그적 감성을 담아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쓸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의 정서는 메말라가고, 급속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서를 순화시키고 집중력과 인내심을 길러주는 전인교육으로서의 서예교육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서예교육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것은 교사의 서예에 대한 이해 부족과 지도방법의 미숙 때문이다. 또한 서예 정신은 없고 기법만을 강조해 서예에 대한 흥미와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교육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서로 가르치며 배우고 있는 5년차 초등교사인 연구자는 어릴 적부터 서예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분명한 것은, 서예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서예의 장점은 첫째, 먹(墨)을 가는 과정이다. 깨끗하게 씻은 벼루(硯)에 물을 넣고 먹을 갈다 보면 맑고 투명한 물이 검은 먹에 의해 색이 변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 먹이 벼루에 갈리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바른 자세로 먹을 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은 차분해지며 글씨를 쓰기 위한 준비과정을 받아들이는 인내심이 생기게 된다. 먹을 가는 것은 글씨를 쓰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알맞게 갈아진 먹즙은 좋은 글씨를 쓰는데 도움을 준다.

두 번째 장점은 붓(筆)과 종이(紙)의 만남이다. 부드러운 동물의 털을 사용한 모필(毛筆)이 먹을 머금었을 때 탄력 있는 글씨를 쓸 수 있다. 종이는 먹의 농담과 붓놀림의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즉, 붓과 종이의 만남에 의하여 살아있

는 글씨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한번 붓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쓰면 두 번 덧칠한 티가 나므로 서예에서는 글씨를 쓸 때 가필(加筆)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일필휘지(一筆揮之)이다. 붓을 한번 휘둘러 즐기치게 써내려가는 힘 있는 모습과 호탕함은 서예의 또 다른 매력이다.

세 번째 장점은 한자(漢字)를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자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예로부터 다양한 서체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서예로 한자를 쓰다 보면 따로 한자공부를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한자를 익힐 수 있다. 우리말의 70%를 차지하는 한자는 우리 생활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다. 한자를 알면 우리말에 대한 이해도와 어휘력이 상승하여 더욱 폭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 서예내용에는 한글만 포함되어 있어 한자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점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심미안(審美眼)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예는 의사소통이나 기록이라는 실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를 이용한다. 하지만 서예가 예술로서 승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美)를 추구하고 표현하기 때문이다. 한자나 한글을 쓰다 보면 필획이나 점 하나도 붓의 움직임에 따라 모두 다르다. 그런 우연성이 만나 글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필획의 변화, 통일, 균형 등에 의하여 조형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글자를 합쳐 놓은 작품에서는 전체적인 조화에 의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획이 모여 글자가 되고 글자가 모여 하나의 작품이 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과 자신감은 서예가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초등학교에서 서예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현재 미술 교과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간상인 「미적 감수성과 직관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삶을 창의적으로 향유하며 미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초등서예교육이 도움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초등학교 서예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서예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하여 서예의 이론적 배경 및 교육적 의의를 고찰함으로써 서예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둘째, 2007개정 교육과정(5~6학년, 3~4학년)과 2009개정 교육과정(3~4학년)의 미술교과에서 서예내용을 분석한다.

셋째, 제주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서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교사들의 지도 실태를 분석한다.

넷째,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서예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내 초등학교 28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경력별로 5년 미만 62명, 5년~15년 66명, 15년 이상 40명, 총 16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생은 학년별로 4학년 108명, 5학년 210명, 6학년 329명, 총 64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조사 대상 교사 및 아동의 표집은 임의 표집으로서 집단의 대표성 문제와 편기성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초등학교 서예교육의 연구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미흡함이 있다.

II. 본 론

1. 서예의 이론적 배경

가. 서예의 의의

1) 서예의 개념

서예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함에 있어 우선 서예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서예는 한자로 ‘서(書)’와 ‘예(藝)’를 합한 말로서 서(書)가 예술(藝)의 한 양식으로 발전하여 독자적 장르를 이루고 있는 예술형식이다.

원래 ‘서(書)’는 본디 붓이나 송곳 따위의 연장으로 금석, 죽백, 종이 같은 것에 무엇인가를 바르거나 쓰거나 또는 새기는 것을 뜻하는 ‘쓴다’, ‘기록한다’는 의미였다. 거기에 예술을 뜻하는 ‘예(藝)’와 결합하여 ‘서예’가 됨으로써 그 내용과 형식의 차원이 매우 다양해졌으며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이 보다 뚜렷해졌다. 따라서 서예는 곧 ‘문자를 붓으로 써서 아름다움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¹⁾

전통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서예는 문방사보(文房四寶)를 표현도구로 삼아 문자의 미(美)를 창출해내는 동아시아 특유의 예술이다. 서예는 한자문화권에서 주로 성행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글씨를 쓰는 실기 위주의 방법을 말하는 ‘서법(書法)’, 일본에서는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는 명칭으로 ‘서도(書道)’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조형예술이라는 의미로 ‘서예(書藝)’라고 부른다.²⁾

또한 서예는 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로서 붓과 다양한 먹색을 이용하여 점과 선, 형과 색의 추상미로 표현하는 조형예술이다. 즉, 단순한 문자 자체의 표현인 실용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 문자가 지닌 의미와 구조적인 조형성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동시에 미를 표현하는 사람의 정신적 내면세계가 반영된 독특한 예술이라 할 수 있다.³⁾

1) 송하경, 2003, p.223.

2) 김을진, 2004, p.4.

3) 김도임, 2010, p.6.

2) 서예의 특성

(가) 자연성

우리는 서예용구를 이용하여 글씨를 쓰는 모습에서 서예의 자연성을 찾을 수 있다. 서예는 문방사우(文房四友)를 사용한 예술이다. 즉, 벼루에 먹을 갈아 붓으로 종이 위에 문자를 씌으로써 이루어지는 예술이다. 서예의 재료와 용구는 모두 자연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서예의 재료와 용구를 살펴보면, 우선 내구성이 좋은 동물의 털로 이루어진 붓(筆)은 동물성이고, 나무를 원료로 한 종이(紙)는 식물성이며 소나무 등 식물의 기름을 연소시켜 생긴 그을음을 아교로 굳혀 만든 먹(墨)은 광물성이다. 먹을 가는 도구이자 붓과 먹물이 만나는 장소인 벼루(硯) 역시 광물이다.

따라서 먹물을 머금은 붓으로 종이 위에 글씨를 쓰는 것은 곧, 동물들(붓)이 초원(종이) 위를 달리면서 씨앗(먹 알갱이)을 물과 함께 뿌리는 것과 같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활용하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이렇듯 글씨를 쓰는 행위자체를 자연성과 연관시킬 수 있다.⁴⁾

(나) 인간성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서예의 용구를 문방사우(文房四友)라고 하여 붓, 먹, 벼루, 종이를 벗으로 인식하여 정겹게 표현하였다. 붓, 먹, 벼루, 종이를 단순히 서예의 재료와 용구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인간으로 표현한 점에서 서예의 인간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서양에서는 글씨를 쓸 때, 펜이나 만년필과 같이 단단한 철필을 사용하는데 반해 동양에서는 부드러운 동물의 털로 만들어진 붓으로 글씨를 썼다. 부드러운 털을 이용하여 가늘거나 굵게, 빠르거나 느리게, 펼치거나 오므리기도 하며 섬세하게 글씨를 씌우면서 쓰는 사람, 즉 인간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글자와 글자가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이 이루어지듯이, 서예로 만나는 스승과 제자, 그리고 벗들 사이에는 진솔하고 끈끈한 어울림이 있다. 서예

4) 권상호, 2004, p.2.

는 자기만족, 자기 수양, 자아실현의 예술인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예절을 중시하는 예술이다. 인간의 삶이 결코 혼자가 아니듯, 서예를 통해 사람과 더불어 사는 방법과 예절을 배우게 되고 사람이 가야할 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⁵⁾

글씨를 쓰면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도록 하고 글씨를 통해 맑은 정신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람이 일생동안 살아가면서 서예의 즐거움을 그 취미로 여긴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다) 예술성

서예는 문자의 실용성만을 강조함으로 끝나지 않는다. 서예는 높은 정신과 철학을 기반으로 미적 조형성을 추구하는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⁶⁾

문자를 소재로 창작하는 서예는 문자의 의사전달이나 기록과 같은 실용적 목적을 넘어 무엇인가를 좀 더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서 시작되었다. 서예는 묵색(墨色)의 농담에 따라 선과 점으로 표현하며 비례, 균형, 통일감 및 변화에 의해 글자와 여백, 글자와 글자의 조화를 표현함으로써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표현하므로 서예는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서예는 글씨를 쓰는 사람의 마음과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므로 자기표현예술이기도 하다.

또한 서예는 문자를 써서 그 형태를 아름답게 표현한 문자예술이다. 글자가 말을 적기 위한 일정한 체계의 기호라면 글씨는 그 모양새이다. 글씨가 예술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조형적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형적 특성을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예술적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⁷⁾

5) 김선영, 2007, p.4.

6) 김희정, 2003, p.8.

7) 권상미, 2005, p.8.

3) 서예의 의의

서예의 참다운 의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기술 습득이나 수련에 못지않게 쓰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감성과 정신, 인격을 담아내는 것에 있다.

중국의 서예가 왕희지는 ‘마음은 장군이고, 그의 재능은 부장이며, 글자의 획을 배치하는 것은 전장에서 책략을 도모하는 것과 같고, 붓을 종이에 출입시키는 것은 호령하는 것이며, 획이 꺾일 때나 돌아갈 때는 전장에서 살육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글씨를 전투에 비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곧 서예가 마음의 작용을 잘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⁸⁾

서예는 정신 수양에 있어서 필수적인 교양이자 학문이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선비들의 인간 본위의 교육을 중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여섯 가지 교육 과목으로 육예(六藝)가 있었다. 육예교육은 크게 세 방향으로 구분되는데, 윤리생활을 중심으로 한 예(禮)와 악(樂), 무술의 단련을 위주로 하는 사(射)와 어(御), 지능의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서(書)와 수(數)가 그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서(書), 즉 서예를 독립된 한 교과로 여길 만큼 서예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⁹⁾

또한, 양웅(揚雄)은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소리이고, 글씨라는 것은 마음의 그림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서예는 쓰는 사람의 성격과 인품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인데, 이 말은 후에 서예작품과 작가의 인품을 연관시켜 ‘글씨가 그 사람을 대변한다’는 뜻인 ‘서여기인(書如其人)’이라는 말로 사용되었다.¹⁰⁾

글씨는 곧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의 됄됨이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글씨를 아무리 잘 써도 소용이 없다. 서예를 빛낸 몇몇 역사적인 인물을 살펴보면 이웃나라의 왕희지(王羲之), 안진경(顔眞卿), 당태종(唐太宗), 소동파(蘇東坡), 우리나라의 김생(金生), 김정희(金正喜), 안중근(安重根) 등으로 이들은 단 한 번도 서예가라고 자부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직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도

8) 이주형, 2012, p.4.

9) 김명숙, 2001, p.9.

10) 권은경, 2008, p.6.

리를 생각하고 글씨를 쓴 사람들이다. 즉 인간의 참된 삶을 위해서 글씨를 쓴 사람들인 것이다.¹¹⁾

나. 서예의 역사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한글서예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서예는 애초에 한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한문서예의 오랜 전통과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한문서예에서 교육적 의의를 충분히 고찰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크게 중국 서예의 역사와 한국 서예의 역사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중국 서예의 역사

한자의 초기형태인 갑골문 이후, 제기나 무기 또는 악기에 새긴 금문(金文)이 생겼으며 주나라 때에는 글자들을 통일하려고, 고문(古文)을 정리하여 대전(大篆)이 만들어졌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석각이 발전하였으며 죽간에 기록을 정리하였다.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때에는 나라를 통치하고 글씨를 통일하기 위해 서동문(書同文)의 정책을 실시하였고 승상 이사(李斯)로 하여금 진나라 문자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서 써오던 글자들을 하나로 규범화시킨 것이 소전체다. 소전체의 특징은 결구가 길고 가느다란 모양으로 필획이 가지런하고 대칭을 이룬다는 것이다. 대전과 소전을 통틀어 전서(篆書)라고 한다. 그리고 한나라에 와서는 예서(隸書)와 초서(草書), 그리고 한나라 말기에 만들어진 해서(楷書)와 행서(行書)까지 하여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는 모든 서체가 만들어졌다.

그 이후,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오체가 모두 완성되었으며, 당나라 때는 해서가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송나라 때에는 행서와 초서가 주류를 이루었고 개성적이고 활달한 서풍을 이루었으며 원나라 때는 형식을 존중하였고, 조맹부의 송설체는 고려 말 조선 초에 영향을 주었다. 명나라 때에는 형식을 중시한 고전파와 창조적 변화를 중시한 개성파가 있었으며 청나라 때에는 고증학, 금석

11) 조수호, 2005, p.69.

학의 발달로 비석의 연구를 중시하였다.¹²⁾

2) 한국 서예의 역사

우리나라의 서예는 한자의 유입으로 애초부터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당의 색체를 띄고 있으며 초기에는 김생이 왕희지체를, 최치원이 구양순체를 바탕으로 한 서체를 남겼다. 고려시대에는 과거제도에 서업이라는 전문직 시험이 있어서 서예가 활성화되었다. 초기에는 구양순체를 많이 썼으며 중기에 탄연이 왕희지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서풍을 이룩하였고, 말기에 이암과 이제현이 원나라 조맹부의 서체를 도입하여 송설체가 성행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한호가 왕희지체를 바탕으로 석봉체를 이룩하였고 후기에는 김정희가 독자적인 추사체를 만들어냈다.

한편 한글서예는 훈민정음(訓民正音: 백성들에게 바른 소리로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한글창제를 반포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한글 반포 후, 궁체는 정희왕후와의 사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다. 정희왕후가 세조 승하 후 예종을 거쳐 성종 7년까지 9년 동안 수렴청정을 할 당시 공문서를 한글로 써서 의정부에 보내면 궁녀들이 그것을 썼다. 이런 까닭으로 궁녀들은 상당한 양의 글씨를 써야 했고 이것이 궁체라는 특수한 서체를 낳았다.



[그림 II-1]
김생.
송하빈객귀월(711)



[그림 II-2]
안평대군.재송엄상좌
귀남서(1450)



[그림 II-3]
한석봉.
석봉천자문(1583)



[그림 II-4]
김정희.
예서대련(19c)

12) 김선영, 2007, p.2.

다. 서체의 종류

여기에서는 서체를 크게 한문서체와 한글서체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한글서체만 제시되어 있으며 3~4학년 군에는 판본체가, 5~6학년 군에는 궁체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문서예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한문서체 역시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문서체의 종류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1) 한문 서체의 종류

가) 전서

갑골문과 금문, 고문에 이어 등장한 대전(大篆)과 소전(小篆)을 통틀어 전서(篆書)라고 하는데 이는 가로획보다 세로획이 길고, 좌우대칭이거나 이에 준하는 형태로 균형을 이루는 특징을 지녔다.



[그림 II-5]
전서 갑골문



[그림 II-6]
전서 석고문(대전)



[그림 II-7]
전서 태산각석(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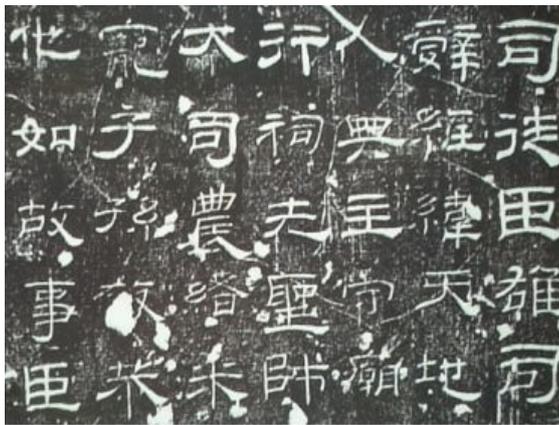
나) 예서

예서는 진나라(기원전221-207)의 정막(程邈)이 소전을 간략히 하여 발명했다고 한다. 예서는 처음에는 일종의 속기(速記)로 여겨져 서기들과 공무원들에 의해서만 사용되었다. 실제로 한자 '예(隸)'는 '서기'를 뜻하고 예서를 서기

체(書記體)라고도 한다. 또한 예서는 ‘좌서(左書)’라고도 불리는데 ‘좌’는 ‘뒀다’, 즉 더 빠르고 더 쉬운 글씨를 쓰는 것을 뒀는다는 뜻이다. 그 후에 진시황의 칙령, 즉 정부의 성명과 공적인 제사에 사용된 제기 명문들은 모두 예서로 쓰였다.¹³⁾

다) 해서

해서는 한나라 말기에 시작하여 수, 당나라 시대에 성행한 서체로서 예서의 빠침법 등 불편함과 초서의 산만함과 인식의 어려움이라는 단점을 보완하여 형성되었으며 오늘날 한자의 표준이 되는 글씨이다.¹⁴⁾



[그림 II-8]
예서 을영비(乙瑛碑)



[그림 II-9]
해서 장맹용비(張猛龍碑)

라) 행서

행서는 해서를 약간 흘린 서체로서 해서와 초서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서를 속필로 쓰기 위해 자연스럽게 간편화되어 생긴 서체이며 동한의 유덕승(劉德升)이 창작했다고 한다.¹⁵⁾ 행서는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달리는 손은 더 자유로운 손놀림과 생생한 움직임 보여준다.¹⁶⁾

13) 장이, 2009, p.47.

14) 공상철, 2001

15) 미술대사전 용어편 한국사전연구소. 1998

16) 장이, 2009, p.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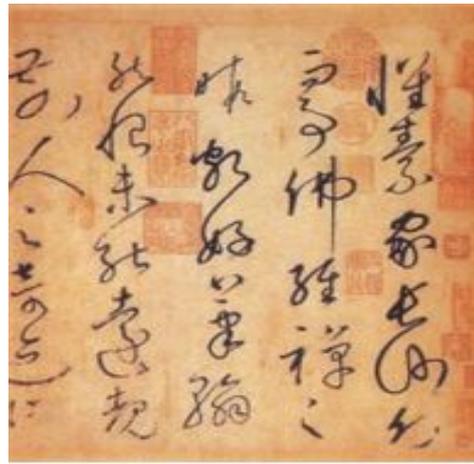
마) 초서

전서에서 예서로 바뀐 뒤에도 글을 빨리 받아 적기 위하여 붓을 굴리거나 꺾으면서 획을 간략하게 흘려 쓴 예서, 즉 초예가 등장했는데 초예가 변한 것이 초서이다. 초서는 편리함을 위해 급하게 대략적인 방법으로 쓴 것을 표현한 말이다. ‘초(草)’는 ‘풀’을 뜻하고 이외에 ‘다듬지 않은’이라는 형용사적 뜻이 있다. 17)



[그림 II-10]

행서 난정서 (왕희지)



[그림 II-11]

초서 자서첩 (회소)

	감골문
	고문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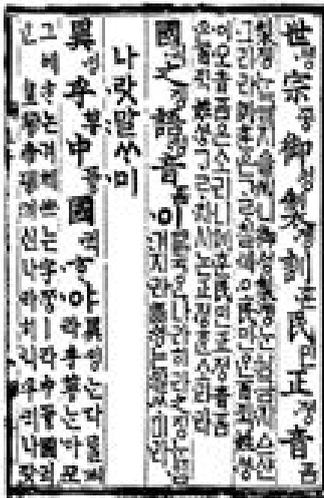
[그림 II-12] 한문서체 비교

17) 장이, 2009, p.84.

2) 한글 서체의 종류

가) 판본체

나무판이나 금속에 새겨서 찍은 글씨를 판본체라 하며, 판본체 글씨들을 누군가가 직접 쓴 것을 필사본이라고 한다. 판본체는 모음의 점을 둥근 모양으로 나타내는 정음체와 선으로 나타내는 월인체가 있다. 판본체는 획의 굵기가 일정하고 사각형에 가까운 조형을 하고 있으며 문자의 중심을 가운데에 두어 좌우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림 II-13]
훈민정음 해례본



[그림 II-14]
용비어천가 제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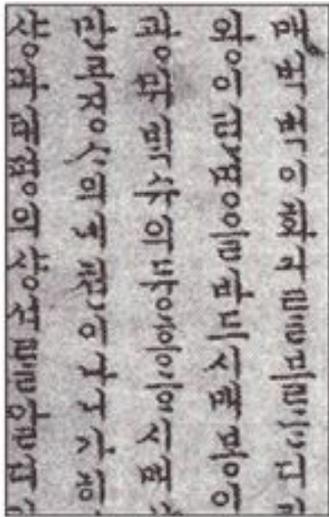
[그림 II-15]
분류두공부시(언해) 권21

나) 궁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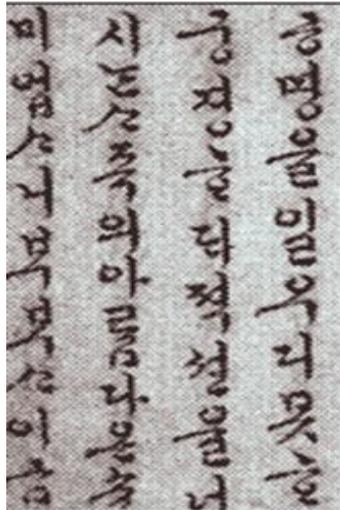
궁중 나인들에 의해 궁중에서 발전한 궁체는 선이 곧고 맑으며 단정한 것이 특징이다. 궁체는 서체로서 정자(正字)와 흘림이 있으며, 흘림체는 전체적으로 날자마다 흘려 쓴 작품과 날자를 흘려 쓰되 글자사이를 연결하여 흘려 쓴 작품으로 분류된다. 양식에 있어서는 등서체(騰書體)와 서한체(書翰體)로 나누어진다.¹⁸⁾ 조선 전기에는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었으나 영 정조시대의 문예부흥기 이후로는 각종 서적에 한글만 쓰게 되는 부흥기를 맞이하게 된다.¹⁹⁾

18) 전규호, 2009, p.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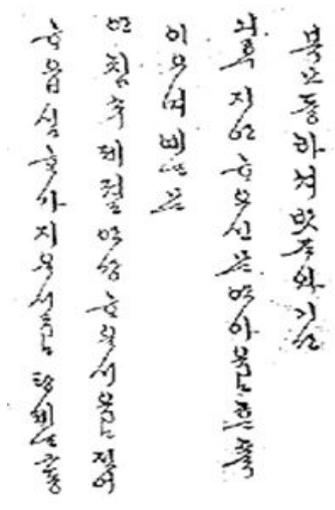
19) 김혜진, 2009, p.24.



[그림 II-16]
남계연담 조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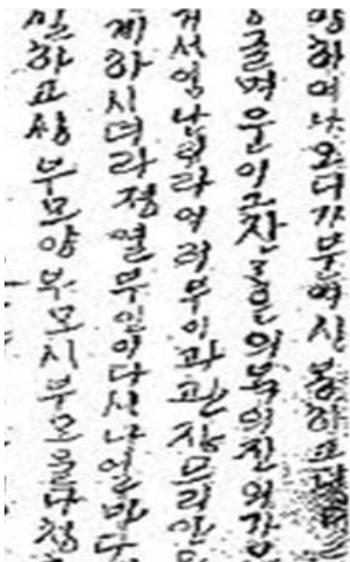
[그림 II-17]
낙성비룡 조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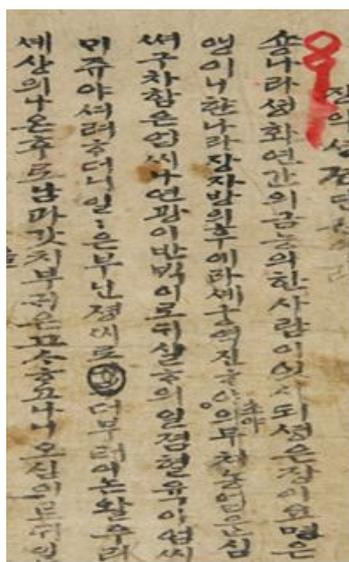
[그림 II-18]
봉서 조선시대

(3) 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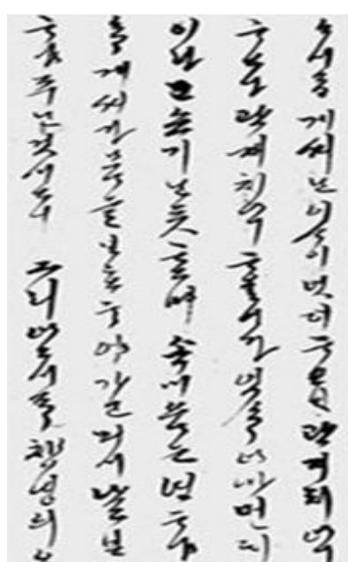
민간서체의 줄임말인 민체는 판본체, 궁체와 다르게 정형성보다는 글씨를 쓰는 이의 개성과 미의식이 반영되는 글씨체이다. 소설내용을 베껴 쓴 서체를 등서(謄書)체라고 하며, 편지글서체를 서간(書柬)체라고 한다.



[그림 II-19]
숙향전 조선시대



[그림 II-20]
장익성전 1장 조선시대



[그림 II-21]
김정희 서간 조선시대

라. 서예의 교육적 의의

1) 창의성 교육

서예는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의인성교육에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서예가 창의성교육에 주는 의미는 서예의 다양성에서 찾을 수 있다. 먹물은 머금은 붓이 종이와 만날 때에는 똑같은 획이 나올 수가 없는데 아무리 간단한 붓의 움직임이라 할지라도 먹의 농도와 붓의 운필과 속도감, 강약의 변화에 의하여 한순간의 필획에서 무수한 변화가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서예를 할 때에는 획일화된 글씨가 나오지 않고 쓰는 사람의 역량과 심리상태에 의하여 글씨가 나오는 것이다.

나아가, 서예는 자기 내면의 표현이자 자기완성의 길이라 할 수 있다.²⁰⁾ 서예 학습을 통해 자신의 글씨체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개성을 살려 창의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자기 수양, 자기완성의 길을 걸을 수 있다.

2) 인성 교육

두 번째는 인성교육이다. 유희재는 <서개(書概)>에서 “필성묵정(筆性墨情)이란, 그 사람의 성정(性情)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니 성정을 다스리는 것이 글씨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힘써야 할 사항이다.”라고 하였다.²¹⁾ 즉, 서예는 인간의 마음가짐과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활동으로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큰 몫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붓글씨 쓰기는 먹을 갈고, 한 획 한 획 정성껏 글씨를 쓰는 과정, 또 다소 복잡한 뒷정리를 해야 하는 특성상 차분함, 인내심, 성실성을 기르고 나아가 바른 인격을 형성하는데 적합한 활동이다.²²⁾ 서예는 먹을 갈고 한 자루의 붓에 의지하여 쓰는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담아내는 예술이기 때문에 잠시만 마음이 흐트러져도 바로 글씨가 흐트러지게 된다. 따라서 항상 마음을 가다듬고 집

20) 김희정, 2003, p.17.

21) 민상덕, 1992, p.30.

22) 초등학교 미술 3~4 지도서, 2013, p.176.

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서예를 하면 집중력과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빠르고 편리한 것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천천히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는 과정 속에서 정서를 순화하고 침착한 태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서예는 효과적인 정서교육으로서의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전통문화 계승

서예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깃든 조화로운 조형예술로서 장구한 역사와 더불어 우리의 넋과 숨결이 깃들여 발전해왔다. 아이들은 서예를 함으로써 지필묵연(紙筆墨硯)이라는 전통 미술재료를 사용한 선조들의 품격 있는 교육을 체험하게 된다.

조상들이 쓴 서예 작품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다듬어진 민족의 미의식이 반영되어 조화와 균형, 변화와 통일의 조형미가 선으로 잘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한글서예는 한글 구조에 알맞은 독창성 및 조형성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서예교육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이라는 측면과 서예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조상들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²³⁾

4) 심신건강 증진

우리는 서예를 통해 몰입을 경험할 수 있다. 칙센트 미하이 는 『Flow』에서, 몰입이란 ‘어떤 활동이나 상황에 완전히 빠져들어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람들은 몰입을 경험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였다. 서예를 할 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정신의 몰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예는 한 번 획을 그으면 다시 되풀이 할 수 없는 불가역성과 일회성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서예의 붓은 매우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붓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려면 누구든 고도의 집중과 절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몰입을 함으로써 성취감과 함께 행복감

23) 초등학교 5~6학년 미술지도서, 2011, p.130.

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²⁴⁾

또한 서예에서는 손을 많이 사용하는데 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뇌를 발달시킨다. 실제로 뇌의 두정엽에 있는 운동 중추의 30%는 손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으며 신경세포 하나는 1000~10000개의 다른 뇌세포와 연결되어 있어 손 운동과 관련 있는 세포는 다른 종류의 뇌세포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²⁵⁾

그리고 서예의 집필법은 수지침과 연관 지을 수 있는데, 수지침 이론에서는 손의 각 부위가 우리 몸의 오장과 연결되어 각각의 부위를 자극하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오장의 운동력을 길러주고 전신운동을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바른 자세로 붓을 잡고 글씨를 쓴다는 것은 곧 손가락에 균형 있는 힘을 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각 부위에 상쾌한 자극을 주게 되어 급기야는 내장 전체의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²⁶⁾

게다가 서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완법인 팔꿈치를 들어 쓰는 현완법은 태극권의 침견수주(沈肩垂肘)와 유사하여 어깨와 팔꿈치를 처지게 하여 단전의 힘을 길러준다.²⁷⁾

24) 김수천, 2003

25) 석진영, 2006, p.16.

26) 류정훈, 1988, p.37.

27) 윤경숙, 2011, p.20.

2. 초등학교 미술교과 서예내용 분석

가. 초등학교 3~4학년 미술교과 서예내용 분석

초등학교 3~4학년은 2013학년도까지 ‘2007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하였다. ‘2007개정교육과정’에서 미술 교과서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 3~4학년은 2014학년도부터 ‘2009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3~4학년 미술교과 서예내용 분석은 ‘2007개정교육과정 교육부 국정교과서’와 ‘2009개정교육과정 검정교과서’ 중 4개의 검정교과서를 선택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2007개정교육과정(3~4학년) 서예내용 분석

가) 3~4학년 교육부 국정교과서 <표Ⅱ-1>

단원명	8. 수묵화와 판본체		
단원 목표	(1) 붓 잡는 법과 자세를 알고, 재료와 용구를 바르게 다룬다. (2) 판본체를 이해하고 끝은 획을 바르게 쓴다. (3) 꺾은 획과 비스듬한 획, 굽은 획을 익혀 판본체를 쓴다. (4) 판본체의 자형과 배자 방법을 알고 판본체를 쓴다. (5) 주변에서 판본체 활용의 예를 찾아보고, 자신의 작품으로 생활용품 등을 꾸민다.		
소단원명	수준	소단원 제재명	주요 학습 활동
8-3. 판본체 쓰기 (1)	기초 6차시	바른 자세로 끝은 획 쓰기	-붓 잡는 법과 다루는 법, 자세 알기 -판본체의 기본 획 알기 -역입의 용필 특징 알기 -획의 시작과 끝 부분의 붓 사용 방법 알기 -붓의 방향과 굽기를 사용하며 끝은 획 쓰기
		꺾은 획과 비스듬한 획을 익혀	-꺾은 획과 비스듬한 획의 용필 알기 -획의 방향과 붓면 살펴보기 -꺾은 획과 비스듬한 획 쓰기

		‘미소’ 쓰기	-글자의 균형 알아보기 -“월인천강지곡” 집자 ‘미소’ 살펴보고 쓰기
		굽은 획을 익혀 ‘은하’ 쓰기	-판본체의 용필과 자형 이해하기 -굽은 획의 용필 익히기 -서체 ‘은하’의 구조 알아보고 쓰기
8-4. 판본체 쓰기 (2)	심화 4차시	‘바다파도’ 쓰기	-‘바다 파도’의 접필 방법 알아보기 -‘ㄷ’의 변화 알아보기 -작은 글자 쓰는 자세 알아보기 -배자와 화선지 접는 방법 알아보기 -배자와 용필, 자형 분석하고 ‘바다 파도’ 쓰기
		‘문화유산’ 쓰기	-‘문화유산’의 자형과 필법 알아보기 -배자 방법을 생각하며 ‘문화유산’ 쓰기
		판본체 활용하기	-주변에서 판본체 활용의 예 찾아보기 -내가 쓴 작품으로 생활용품 꾸미기

2) 2009개정 교육과정(3~4학년) 서예내용 분석

가) 3~4학년 교육부 검정교과서(교학사) <표Ⅱ-2>

단원명	8. 글씨의 아름다움		
단원 목표	(1) 바른 자세, 재료와 용구를 알 수 있다. (2) 판본체의 기본 획을 쓸 수 있다. (3) 판본체의 특징을 알 수 있다. (4) 판본체를 활용하여 재미있고 쓸모 있게 꾸밀 수 있다.		
소단원명	수준	소단원 제재명	주요 학습 활동
●1 판본체 쓰기	기초 4차시	■ 바른 자세와 서예의 용구 알아보기	· 바른 자세와 붓 잡는 법 알아보기 · 재료와 용구 알아보기
		○ 기본 획을 익혀 판본체 쓰기	· 기본 획 쓰기 · <선택1> ‘ㄷ’, ‘ㄹ’, ‘ㅏ’를 익혀 ‘나라’ 바르게 쓰기 · <선택2> ‘ㅓ’, ‘ㄴ’, ‘ㅣ’, ‘ㅕ’를 익혀

			‘시내’ 어울리게 쓰기
●2 판본체 익히기와 활용	심화 6차시	■ 판본체의 특징 알아보기	· 판본체를 살펴보고, 글자의 특징 알아 보기
		○ 판본체로 쓰기	· <선택1> 판본체로 ‘파도소리’ 쓰기 · <선택2> 판본체로 ‘하늬바람’ 쓰기 · 글자의 모양 살펴보기
		○ 판본체를 활용 하기	· <선택1> 판본체의 특징을 살려 쓰고, 재미있게 꾸미기 · <선택2> 글자의 조형미를 활용하여 쓸모 있게 꾸미기
		◆ 작품 감상하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글씨의 활용 작품 살펴보기

(※ ■: 체험 ○: 표현 ◆: 감상)

나) 3~4학년 교육부 검정교과서(금성출판사) <표II-3>

단원명	5-(2) 붓글씨 쓰기		
단원 목표	(1) 붓글씨에 필요한 재료와 용구를 알고, 그 사용 방법을 익힌다. (2) 판본체를 이해하고 바른 자세로 기본 획을 익힌다. (3) 판본체의 자형과 배자 방법을 이해하고, 서체를 어울리게 구성하 여 쓴다. (4) 판본체가 다양하게 변화되어 활용된 예를 찾아보고, 그 아름다움 을 감상한다.		
소단원명	수준	소단원 제재명	주요 학습 활동
판본체 알기	기초 6차시	판본체 이해하기	· 판본체의 유래 알기 · 훈민정음의 글자 모양 탐색하기
		바른 자세로 곧은 획 쓰기	· 붓을 잡는 방법과 붓글씨를 쓰는 바른 자세 알기 · 벼루와 붓을 다루는 방법 알기 · 곧은 획을 쓸 때의 붓의 움직임 알기 · ‘ㅡ’와 ‘ ’, ‘ㄷ’,과 ‘교’ 쓰기
		꺾은 획을 알고	· ‘ㄱ’, ‘ㄴ’, ‘ㄷ’, ‘ㄹ’ 쓰기

		‘보리’ 쓰기	· ‘ㄹ’의 접필 방법을 알고, 판본체로 ‘보리’ 쓰기
		비스듬한 획과 굽은 획을 알고 ‘호수’ 쓰기	· ‘ㅅ’과 ‘ㅇ’ 쓰기 · 글자의 중심을 알고, 판본체로 ‘호수’ 쓰기
판본체로 쓰기	심화 6차시	판본체의 자형 구조 알기	· 판본체의 자형 구조 알기 · 작은 글자를 쓰는 자세 알기 · 내 이름을 써 보기
		판본체로 ‘푸른바다’ 쓰기	· 점획의 길이와 간격, 접필 방법 익히기 · 판본체로 ‘푸른바다’ 쓰기
		판본체로 ‘하얀구름’ 쓰기	· 위치에 따른 자음의 모양과 자형의 구조 알기 · 판본체로 ‘하얀구름’ 쓰기
		판본체의 다른 모습 감상하기	· 판본체가 변화되어 활용된 예 찾아보기 · 판본체 글씨의 아름다움 감상하기

다) 3~4학년 교육부 검정교과서(두산동아) <표Ⅱ-4>

단원명	16. 아름다운 글씨 쓰기		
단원 목표	(1) 붓 잡는 법과 자세를 알고, 재료와 용구를 바르게 다룰 수 있다. (2) 판본체를 이해하고 곧은 획을 바르게 쓸 수 있다. (3) 꺾은 획과 비스듬한 획을 익혀 ‘나라’, ‘모자’를 쓸 수 있다. (4) 굽은 획을 익혀 판본체로 ‘아기소리’를 쓸 수 있다.		
소단원명	수준	소단원 제재명	주요 학습 활동
16. 아름다운 글씨 쓰기	8차시	서예의 바른 자세와 붓 잡는 법 익히기	· 서예의 바른 자세와 붓 잡는 방법 알아보기 · 획을 시작하고 끝맺는 방법 알아보기
		판본체의 기본 획 익히기	· 가로획과 세로획 쓰는 법 익히기 · 곧은 획 쓰는 법 익히기 · 꺾은 획 쓰는 법을 익혀 글자 쓰기 · 비스듬한 획 쓰는 법을 익혀 글자 쓰기
		판본체로 글씨 쓰기	· 판본체로 ‘나라’ 쓰기 · 판본체의 비스듬한 획 쓰는 법을 익혀

		판본체로 ‘모자’ 쓰기 • 판본체로 ‘ㅇ’ 쓰는 법을 익혀 ‘아기소리’ 쓰기
	판본체를 활용한 작품을 감상하고 조형물 만들기	• 우리 주변에서 판본체를 활용한 예 찾아보기 • 판본체를 활용한 조형물 만들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라) 3~4학년 교육부 검정교과서(천재교과서) <표Ⅱ-5>

단원명	5. 판본체는 쉬워요		
단원 목표	(1) 판본체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이해한다. (2) 판본체를 쓰기 위한 바른 자세와 붓을 잡는 법을 안다. (3) 판본체의 기본 획을 연습하여 서체 2자, 4자를 쓸 수 있다. (4) 판본체를 활용하여 생활용품을 꾸밀 수 있다. (5) 판본체 작품을 감상하고 특징을 찾아 이야기한다.		
소단원명	수준	소단원 제재명	주요 학습 활동
5. 판본체는 쉬워요	심화 6차시	판본체의 글자 모양 살펴보기	• 여러 판본체 본을 찾아 살펴보기 • 판본체의 특징 찾기
		바른 자세와 준비물 알기	• 재료와 용구 살펴보기 • 붓을 잡는 방법과 팔의 자세 익히기 • 몸의 자세 익히기
		판본체의 기본 획 연습하기	• 판본체의 기본획의 용필 방법 알기 • 판본체 기본 획 쓰기
		판본체 쓰기	• 판본체로 자음과 모음 쓰기 • 판본체로 받침 없는 글자 쓰기 ('우리', '나라') • 판본체로 받침 있는 글자 쓰기 ('강산', '웃음')
		판본체 활용하기	• <선택1> 내가 쓴 작품으로 생활용품 꾸미기 • <선택2> 티셔츠에 판본체 쓰기

3) 3~4학년 2007개정교육과정과 2009개정교육과정 서제 및 차시 비교 <표Ⅱ-6>

비교		서제		차시 (수준)	서예시간 비율(%)	
교과서						
국정교과서 (2007개정)		미소	은하	10 (기초6+심화4)	10/136 (7.3%)	
		바다 파도	문화 유산			
검정 교과서 (2009 개정)	교학사	나라	시내	10 (기초4+심화6)	10/136 (7.3%)	
		파도 소리	하늬 바람			
	금성 출판사	보리	호수	12 (기초6+심화6)	12/136 (8.8%)	
		푸른 바다	하얀 구름			
	두산 동아	나라	아기	8 (심화8)	8/136 (5.8%)	
		모자	소리			
	천재 교과서	우리	소리	6 (심화6)	6/136 (4.4%)	
		강산	웃음			
						36/544 (6.6%)

4) 3~4학년 2007개정교육과정과 2009개정교육과정 비교 및 분석

3~4학년 미술교과 2009개정교육과정은 2014학년도부터 검정교과서가 도입됨에 따라 다양한 교과서가 제시되었다. 검정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체계에 근거하여 내용과 단원을 구성하되 순서와 배열은 교과서별로 창의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다만 2007개정교육과정과 2009개정교육과정 3~4학년 준에서는 모두 판본체를 기본서체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단원구성과 서제, 서예 배당시간을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가) 단원구성

2007개정교육과정에서는 서예단원이 따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수묵화단원’과 ‘서예(판본체)단원’이 통합되어 하나의 단원을 이루고 있다. 2009개정교육과정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묵화단원’과 ‘서예(판본체)단원’이 통합되어 있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수묵화단원’과 ‘서예(판본체)단원’이 따로 존재하지만 ‘수묵화단원’은 기초, ‘서예(판본체)단원’은 심화로 구분함으로써 결국은 ‘수묵화단원’과 ‘서예(판본체)단원’이 연결 및 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교과서에서는 ‘서예(판본체)단원’이 하나의 단원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곧, ‘서예가 수묵화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서제

서제는 대부분 자형의 난이도에 따라 기초(2글자 2개), 심화(4글자 2개)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에서는 받침이 없는 글자가 많으며 심화에서는 받침이 있는 글자가 많고 자음과 모음의 위치가 다양하다. 하지만 2009개정교육과정 일부 교과서에서는 정해진 서제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연습한 기본 획과 글자를 가지고 새로운 서제를 조합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2007개정교육과정과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서제를 연습한

후에는 판본체를 활용하는 시간이 제시되어 있다. 생활용품을 만들거나 조형물을 꾸미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서예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2007개정교육과정에서는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이 따로 없는데 반해,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이 마지막 차시에 제시되어 있다. 즉, 미술교과의 서예단원에서조차 점차 감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서예 배당시간

서예 배당시간을 보면 서예시간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7개정교육과정에서는 3~4학년군 미술시간 총 136시간 중 서예에 배당된 시간은 10시간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별로 다르긴 하나 4종류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미술시간 중 서예에 배당된 시간은 9시간이다. 1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전체 미술교과 대비 비율로 보았을 때에는 7.3%에서 6.6%로 다소 감소하였다.

즉, 2007개정교육과정에서는 3~4학년 동안 서예를 10시간 배우고,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3~4학년 동안 서예를 9시간 배우는 것이다. 3~4학년 2년 동안 서예를 10시간도 채 못 배운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2007개정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09개정교육과정 역시 서예 배당시간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 초등학교 5~6학년 미술교과 서예내용 분석

초등학교 5~6학년은 3~4학년과 달리, 2014학년도까지 ‘2007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5~6학년 ‘2007개정교육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5~6학년 미술교과 내용분석은 ‘2007개정교육과정’ 중 4개의 검정교과서를 선택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2007 개정교육과정(5~6학년) 서예내용 분석

가) 5~6학년 교육부 검정교과서(교학사) <표Ⅱ-7>

단원명	7. 글씨와 예술		
단원 목표	(1) 서예의 바른 자세 및 집필법을 알고, 바른 자세로 판본체를 쓸 수 있다. (2) 판본체와 궁체를 비교하고, 궁체의 점획을 바르게 익혀 궁체 정자를 쓸 수 있다. (3) 궁체의 특징을 살려 바르게 써 보고, 서로의 작품에서 잘된 점을 찾을 수 있다. (4) 한글의 조형미를 살려 글씨를 쓰고 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5) 서로의 작품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진다.		
소단원명	수준	소단원 제재명	주요 학습 활동
●1 서예의 자세와 판본체 쓰기	기초 2차시	■서예의 바른 자세 알아보기 ○판본체로 ‘ 고요한 가을밤 ’ 쓰기	· 붓 잡는 법과 팔의 자세를 살펴보기 · 문방사우의 뜻과 붓의 명칭 알아보기 · 점획의 간격과 길이, 배자를 생각하여 어울리게 쓰기 · 이름 쓸 때 주의할 점 알아보기
●2 판본체 와 궁체	기초 2차시	■판본체와 궁체 비교하기 ○궁체로 ‘ 우리 ’ 쓰기	· 판본체와 궁체로 쓰인 작품 감상하기 · 판본체와 궁체의 글자 모양을 비교하기 · ‘ㅇ’, ‘ㅡ’, ‘ㅣ’를 익혀서 쓰기 · 궁체 점의 변화를 살펴 바르게 쓰기
●3	심화	○궁체로	· ‘口’, ‘ㄷ’ 쓰는 법과 자형에 유의하여

궁체 쓰기와 한글의 조형미	6차시	‘뫑계구름’ 쓰기	바르게 쓰기 · 위치에 따른 ‘ㄱ’과 ‘ㄴ’의 모양 변화를 알아보기
		○궁체로 ‘초록빛 여울물’ 쓰기	· ‘ㅈ’, ‘ㅊ’의 쓰는 법과 ‘ㄴ’의 변화를 익 혀서 바르게 쓰기
		○한글의 조형미 를 응용하여 표현 하기	· 조형미를 살려 개성 있는 글씨체로 표 현하기 · 글씨를 새겨 활용하기
		◆작품 감상하기	· 글자의 모양과 짜임새를 살펴보기

(※ ■: 체험 ○: 표현 ◆: 감상)

나) 5~6학년 교육부 검정교과서(금성출판사) <표Ⅱ-8>

단원명	8. 향기로운 우리 미술		
단원 목표	(1) 한글 글씨체가 개성 있고, 효과적으로 쓰인 예를 찾을 수 있다. (2) 판본체와 궁체의 차이를 안다. (3) 궁체로 ‘바른자세’와 ‘아름다운 우리문화’를 쓸 수 있다. (4) 개성 있는 나만의 한글 서체를 만들 수 있다.		
소단원명	수준	소단원 제재명	주요 학습 활동
궁체에서 나만의 글씨체 까지	기초 4차시	■한글 글씨체의 활용	· 한글 글씨체가 개성 있고 효과적으로 쓰인 예 찾기
		■판본체와 궁체 비교하기	· 판본체와 궁체의 글자 모양 비교하기 · 붓글씨를 쓰는 바른 자세 알아보기
		●궁체로 쓰기	· 점획의 간격과 길이를 생각하며 궁체 로 ‘바른자세’ 쓰기 · 점획의 방향과 굵기 변화를 생각하며 궁체로 ‘아름다운 우리문화’ 쓰기
	심화 2차시	●나만의 글씨체 만들기	· 개성 있는 한글 서체 만들고 자신이 만든 서체에 이름 지어보기 · 나만의 글씨체를 활용하여 쇼핑백 만 들기

		◆보고 느끼며 이해하는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의 모양과 짜임새를 생각하며 작품 감상하기 · 궁체의 특징과 붓글씨를 쓸 때의 바른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기
--	--	-----------------	--

(※ □: 미적체험 ●: 표현 ◆: 감상)

다) 5~6학년 교육부 검정교과서(두산동아) <표Ⅱ-9>

단원명	전통미술		
단원 목표	(1) 판본체의 운필과 자형의 특징을 살려 어울리게 쓸 수 있다. (2) 궁체의 기본 운필법을 익힌 뒤 2자를 쓸 수 있다. (3) ‘엄마모습’과 ‘백록담 천지연’을 어울리게 쓸 수 있다. (4) 그림 위에 궁체로 이름이나 알맞은 제목을 쓸 수 있다. (5) 운필과 자형, 어울림을 살피며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소단원명	수준	소단원 제재명	주요 학습 활동
15. 판본체, 궁체 쓰기	기초 6차시	판본체와 궁체의 기본획을 익혀 글자를 어울리게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획의 간격과 길이를 생각하며 판본체로 ‘부모형제’ 쓰기 · 글자의 중심과 구성을 생각하며 판본체로 ‘시냇가 솔바람’ 쓰기 · 판본체와 궁체의 특징 비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체의 기본 획 ‘一, 丨, 丶, 丿, ㇇’ 쓰기 · 궁체 점획의 특징을 생각하며 궁체로 ‘나무’, ‘하루’ 쓰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16. 궁체와 함께	심화 6차시	궁체의 특징을 알고 글자가 어울리게 구성하여 정성껏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음과 모음의 조화를 생각하면서 ‘엄마모습’ 쓰기 · 글자의 모양과 짜임새를 생각하면서 ‘백록담 천지연’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을 그리고 알맞은 제목이나 이름을 궁체로 쓰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라) 5~6학년 교육부 검정교과서(천재교과서) <표Ⅱ-10>

단원명	7. 아름다운 우리 글씨		
단원 목표	(1) 궁체의 특징을 이해하고 기본 점획을 익혀 간단한 서체를 쓸 수 있다. (2) 궁체의 특징을 살려 서체와 이름을 써서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3) 친구들의 작품 속에서 궁체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		
소단원명	수준	소단원 제재명	주요 학습 활동
궁체의 이해와 쓰기	기초 6차시	판본체와 궁체의 비교	· 판본체와 궁체의 특징을 찾아 비교하기
		궁체의 기본 획 익히기	· 가로획, 세로획, 기본 점 익히기
		‘고니’, ‘노루’, ‘소나기’ 쓰기	· ‘ㄱ’, ‘ㄴ’, ‘ㄷ’ 쓰는 법 익혀서 ‘고니’와 ‘노루’를 써 보기 · 자음의 변화를 생각하며 ‘소나기’를 써 보기
		작품 감상하기	· 궁체의 특징을 잘 살려 표현한 작품을 찾아 이야기하기
궁체 익히기	심화 6차시	자형의 변화 찾기	· 자음과 모음의 구성에 따른 자형의 다양함을 찾기 · 자음과 모음의 다양한 형태를 찾아보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하기
		‘무지개’, ‘바른 마음’, ‘푸른 산 맑은 물’ 쓰기	· ‘ㄱ’, ‘ㄴ’, ‘ㄷ’의 형태를 익혀서 ‘무지개’를 쓰기 · 자형의 특징을 살려 ‘바른 마음’ 쓰기 · 균형과 어울림을 생각하며 ‘푸른 산 맑은 물’ 쓰기
		작품 감상하기	· 자형의 변화를 살려 표현한 작품 감상하기 · 서체와 이름이 조화롭게 된 작품 찾기

2) 5~6학년 2007개정교육과정 서제 및 차시 비교 <표Ⅱ-11>

비교 교과서		서제			차시 (수준)	서예시간 비율(%)	
검정 교과서 (2007 개정)	교 학 사	가 을 밤 고 요 한	우 리 구 름 무 궁 계	여 초 록 을 물 빛	10 (기초4+ 심화6)	10/136 (7.3%)	40/544 (7.3%)
	금 성 출 판 사	우 리	자 바 세 른	우 리 문 화 아 름 다 운	6 (기초4+ 심화2)	6/136 (4.4%)	
	두 산 동 아	형 부 제 모	나 무	모 습 마	12 (기초6+ 심화6)	12/136 (8.8%)	
		솔 바 라 바 라 가	하 루	천 지 연 백 록 담			
	천 재 교 과 서	귀 니	소 나 기	마 바 른 음	12 (기초6+ 심화6)	12/136 (8.8%)	
		노 루	무 지 개	맑 은 물 푸 른 산			

3) 5~6학년 2007개정교육과정 분석

5~6학년 미술교과는 2015학년도부터 2009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될 예정이며, 2007개정교육과정에서 이미 검정교과서가 도입이 됨에 따라 다양한 교과서가 제시되었다. 검정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체계에 근거하여 내용과 단원을 구성하되 순서와 배열은 교과서별로 창의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단원구성과 서제, 서예 배당시간을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가) 단원구성

5~6학년 2007개정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3~4학년에서 배운 판본체와 5~6학년에 새로 배울 궁체를 비교해보고 차이점을 알아보는 내용이 기초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판본체와 궁체를 비교하기 이전에 판본체를 4~6자 익히는 과정이 제시된 교과서도 있었다.

모든 교과서에서 판본체와 궁체를 비교하고 차이점을 알아본 후, 궁체의 기본 획을 익히고 글자를 써보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마무리 활동으로서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거나 조형미를 살려 개성 있는 글씨체로 표현해 보는 심화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교과서가 똑같지는 않았다. 교과서별로 궁체의 기본 획, 자형, 전체적인 조화 등 기초 서예능력에 중점을 두는 교과서가 있으며, 한글의 조형미를 응용하여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는 교과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서제

판본체를 먼저 익히는 교과서의 경우 4~6자가 제시되어 연습을 하게 되어 있었다. 그 다음 판본체와 궁체를 비교하는 서제는 2~3자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궁체 2글자, 궁체 4글자, 궁체 6글자의 서제가 제시되어 있으며 3글자와 8글자의 서제가 추가된 교과서도 있다.

궁체 2~3글자의 경우,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고유어(우리, 나무,

고니, 하루, 소나기, 무지개 등)가 제시되었으며 궁체 4~6글자의 경우, 자연(몽계 구름, 초록빛 여울물, 천지연 백록담, 푸른산 맑은물 등)과 관련된 서체 또는 몸가짐(바른 자세, 바른 마음 등)과 관련된 서체가 제시되어 있다.

궁체 2~3글자의 경우, 기본 획과 자형, 궁체의 특징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글자가 많아지는 궁체 4~6글자의 경우,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 서예 배당시간

5~6학년군 미술시간 총 136시간 중 4종 교과서의 서예에 배당된 시간은 교과서별로 6시간(4.4%)부터 12시간(8.8%)까지 배정된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평균 10시간(7.3%)이다. 즉, 2007개정교육과정에서는 5~6학년 동안 서예를 10시간 배우는 것이다.

3~4학년 서예 배당시간까지 합하면 초등학교 3~6학년 총 서예 배당시간은 교과서별로 18시간~20시간으로 비슷하다. 즉, 3~4학년에 서예시간을 많이 배당한 교과서도 있고, 5~6학년에 서예시간을 많이 배당한 교과서도 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미술시간 272시간 중에서 서예를 배우는 시간은 3~6학년 통틀어 19시간으로 전체 미술교과 대비 7%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초등서예교육 실태 분석

가. 설문기간 및 대상

1) 설문기간: 2014년 3월

2) 설문대상

가) 제주도내 초등학교: 28교

- 제주도 갑 지역 초등학교(13교)
- 제주도 을 지역 초등학교(7교)
- 서귀포시 지역 초등학교(8교)

나) 교사: 168명

- 경력 5년 미만: 62명
- 경력 5년~15년: 66명
- 경력 15년 이상: 40명

다) 초등학생: 647명

- 초등학교 4학년: 108명
- 초등학교 5학년: 210명
- 초등학교 6학년: 329명

3) 조사도구 및 자료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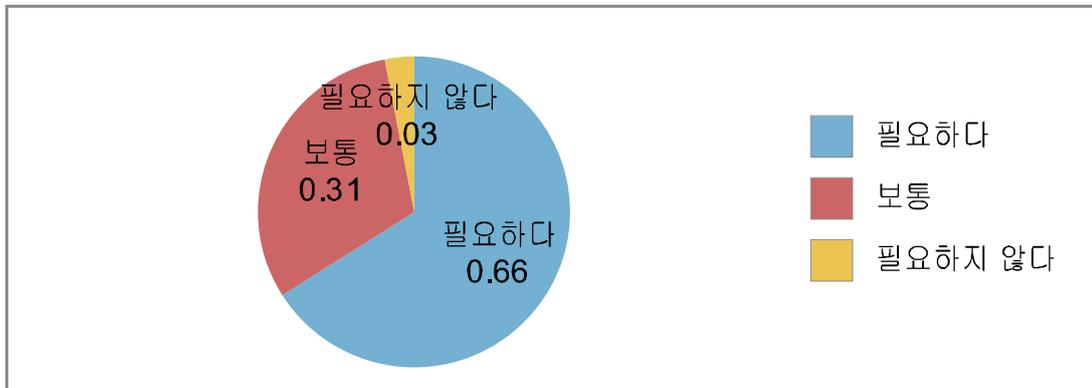
서예교육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 내용 구성은 길도영(2011)의 ‘서예교육 실태 조사 설문지’를 바탕으로 수정·작성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투입하여 얻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낸 백분율로 처리하였다.

나. 교사 지도 실태 분석

1) 교사 대상 설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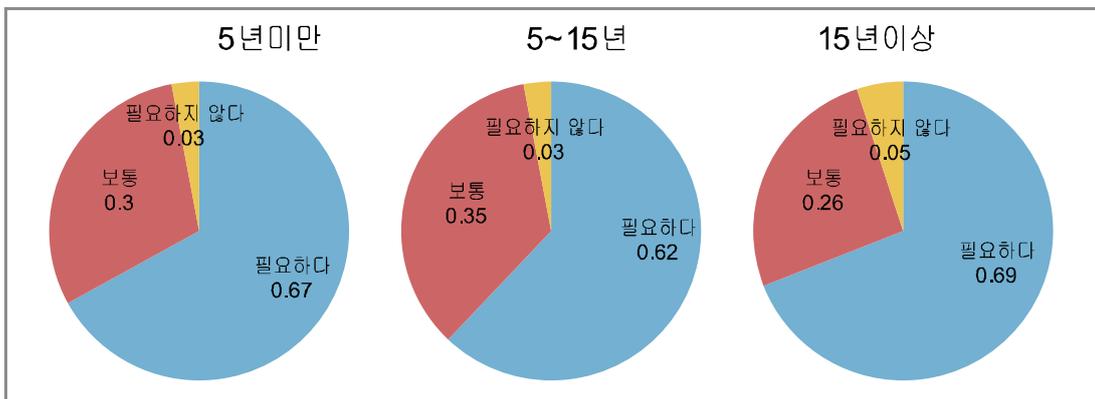
가) 서예교육의 필요성 인식

<표 II-12> 서예교육의 필요성(N=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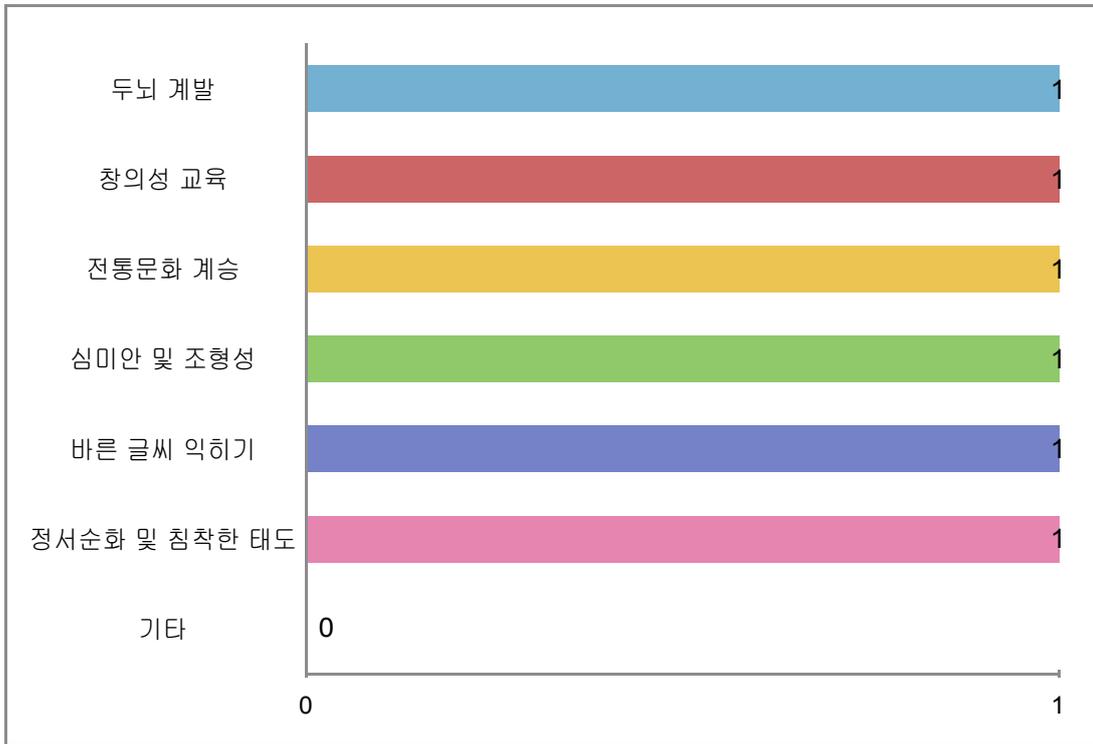
서예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총 166명의 응답 중 119명(66%)이 서예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51명(31%)은 ‘보통’이라고 하였고, 6명(3%)은 서예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II-13> 서예교육의 필요성(교육경력별)



서예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육경력별로 분석했을 때 별다른 차이점은 없었으며, ‘필요하다’는 응답은 15년 이상 경력이 69%로 가장 많았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역시 15년 이상 경력이 5%로 가장 많았다.

<표 II-14> 서예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점(N=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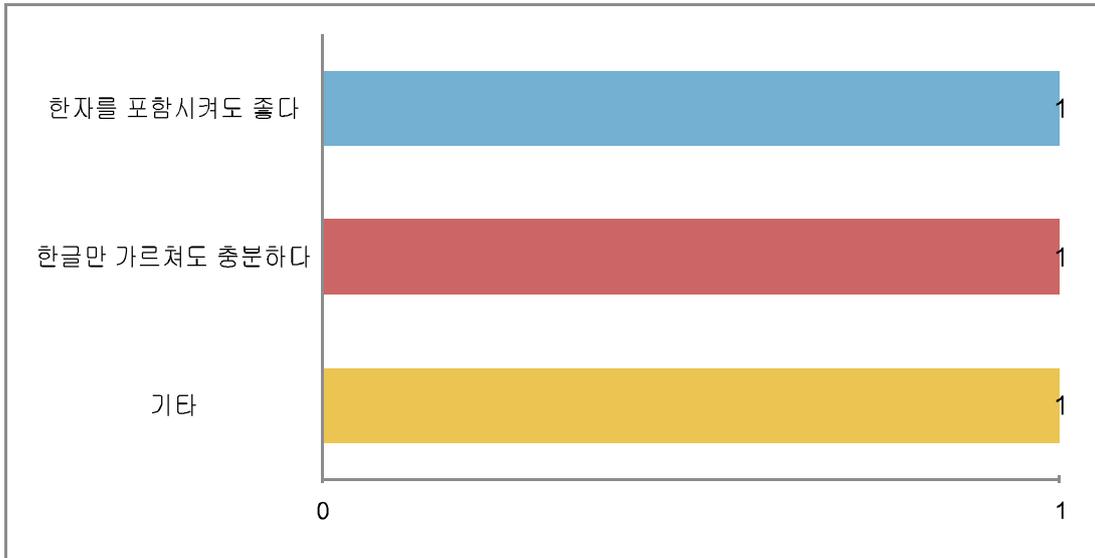


서예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점으로 ‘정서 순화 및 침착한 태도’가 56.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바른 글씨 익히기’가 29.3%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심미안 및 조형성’이 6.6%, ‘전통문화 계승’이 4.5%, ‘두뇌 계발’이 2%, ‘창의성 교육’이 1%였다.

일반적으로 서예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정서 순화 및 침착한 태도’ 및 ‘바른 글씨 익히기’ 외에도 서예가 도움을 주는 점이 많이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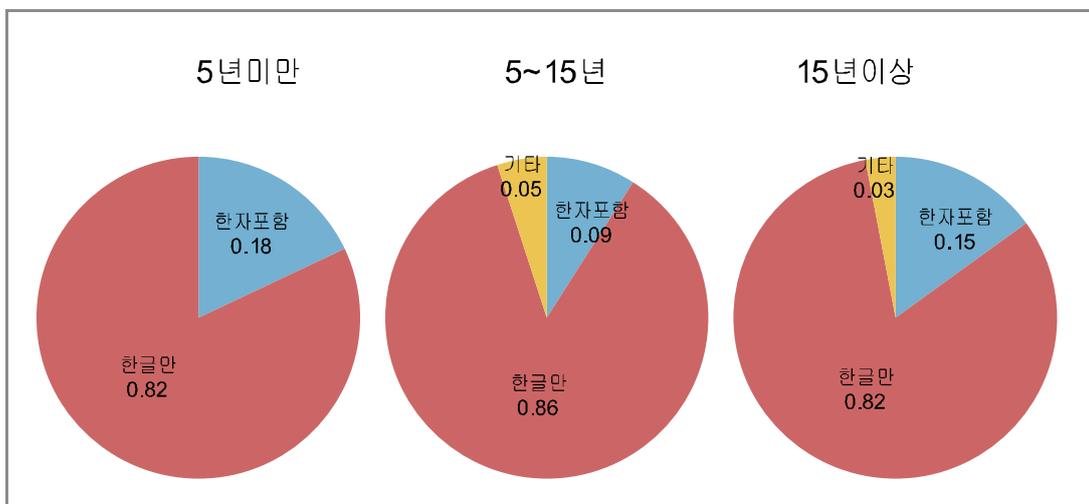
서예경력별로 분석했을 때, 일반적으로 서예의 장점으로 생각하는 ‘정서 순화 및 침착한 태도’ 및 ‘바른 글씨 익히기’에 대한 응답률이 다소 차이가 났다. 5년 미만은 88.7%, 5~15년은 87.8%, 15년 이상은 79.3%로서, 경력이 높아갈수록 서예가 도움을 주는 점에 대하여 비교적 다양하게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I-15> 한문서에 포함에 대한 생각(N=167)



한문서에 포함여부에 관해서는 총 167명의 응답 가운데 140명(83.8%)이 ‘한글만 가르쳐도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3명(13.8%)만이 한자를 포함시켜도 좋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한글만 가르치는 것도 어렵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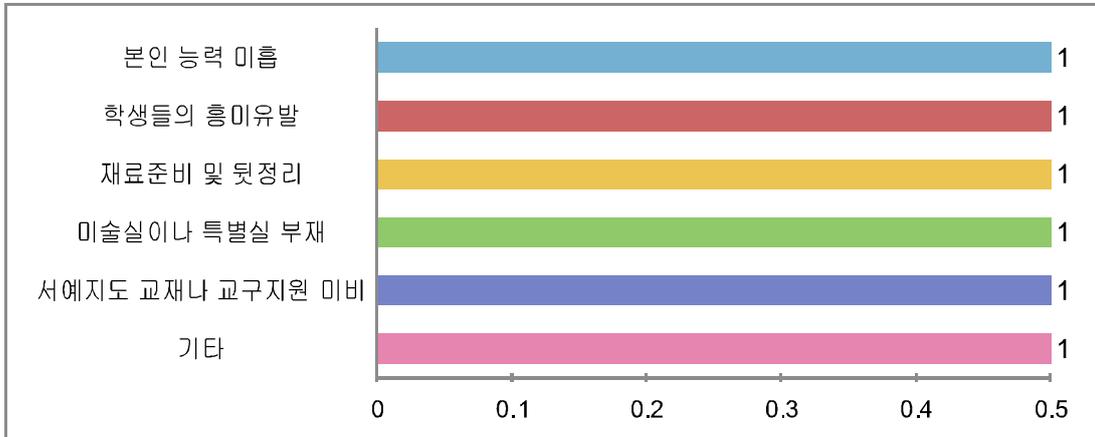
<표 II-16> 한문서에 포함에 대한 생각(교육경력별)



교육경력별로 보았을 때, 별다른 차이는 없었으며, ‘한자를 포함시켜도 좋다’는 문항에 대하여 5년 미만 교사들의 응답률(18%)이 비교적 높았다.

나) 서예지도의 어려움 분석

<표 II-17> 서예지도에서 가장 힘든 점(N=178)



서예지도에서 가장 힘든 점에 대하여 응답자의 44.4%가 ‘재료준비 및 뒷정리’라고 하였고, 29.8%는 ‘본인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9.5%가 ‘학생들의 흥미유발’이 힘들다고 하였으며 7.9%가 ‘미술실과 특별실의 부재’, 7.3%가 ‘서예지도 교재나 교구지원 미비’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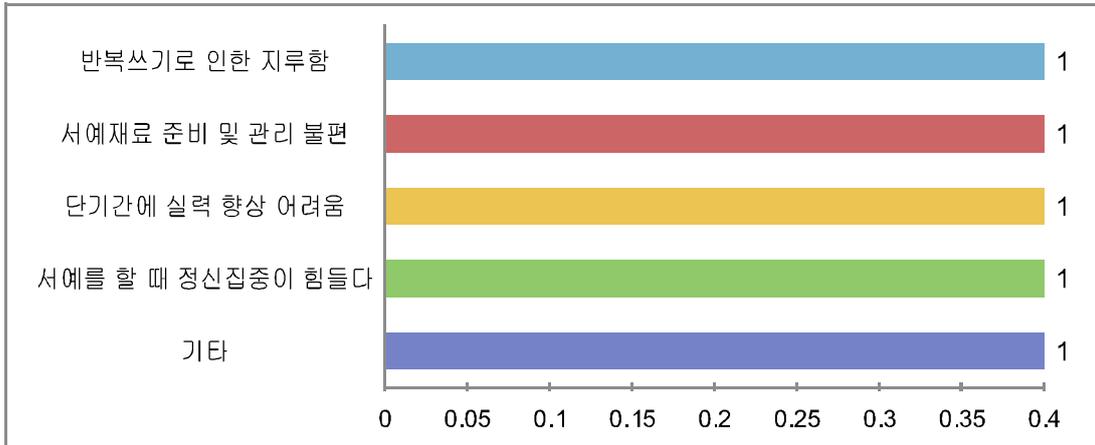
기타 의견(1.1%)으로는 ‘지도시간이 부족하다’, ‘서예는 단기간에 배우기 어렵다’는 것이 힘든 점으로 나왔다.

<표 II-18> 서예지도에서 가장 힘든 점(교육경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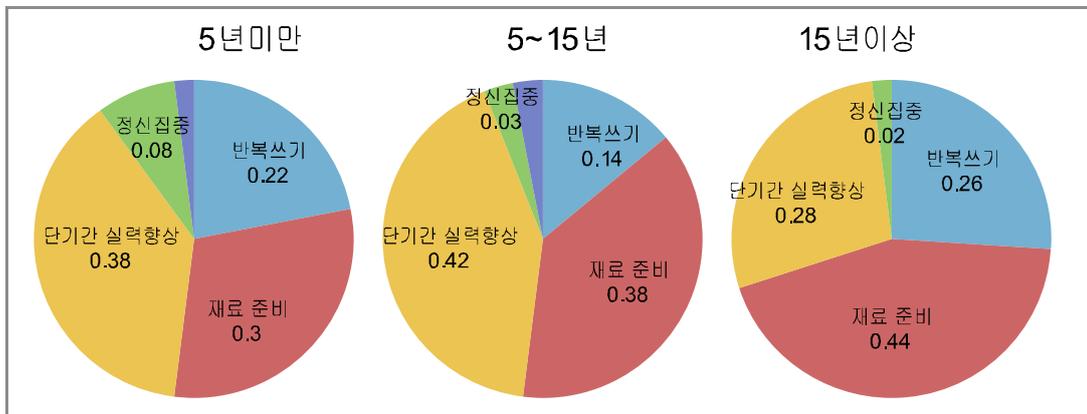
교육경력별로 보았을 때 경력이 많을수록 ‘재료 준비 및 뒷정리’ 비율이 높아지며, 경력이 적을수록 ‘본인 능력 미흡’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19> 학생들이 서예를 기피하거나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한 생각(N=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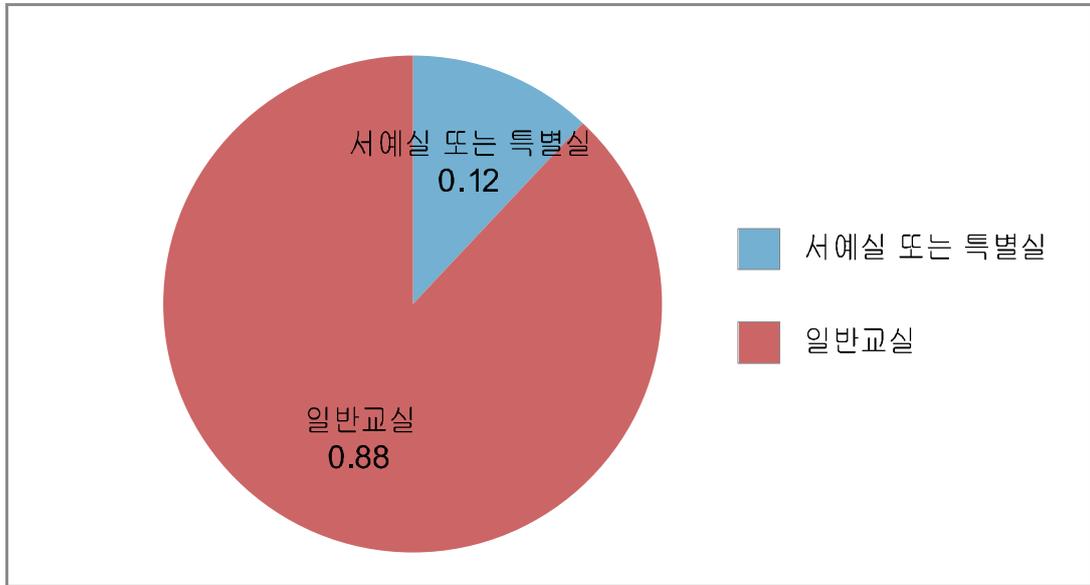
학생들이 서예를 기피하거나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37.1%가 ‘단기간에 실력 향상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36.6%가 ‘서예재료를 준비하거나 관리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20%는 ‘반복쓰기로 인한 지루함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4.6%는 ‘서예를 할 때 정신집중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기타 의견(1.7%)으로는 ‘대부분의 교사가 서예에 대한 지식과 지도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표 II-20> 학생들이 서예를 기피하거나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한 생각(교육경력별)



학생들이 서예를 기피하거나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하여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재료 준비 및 관리 불편’의 비율이 높고, 교육경력이 적을수록 ‘단기간 실력향상 어려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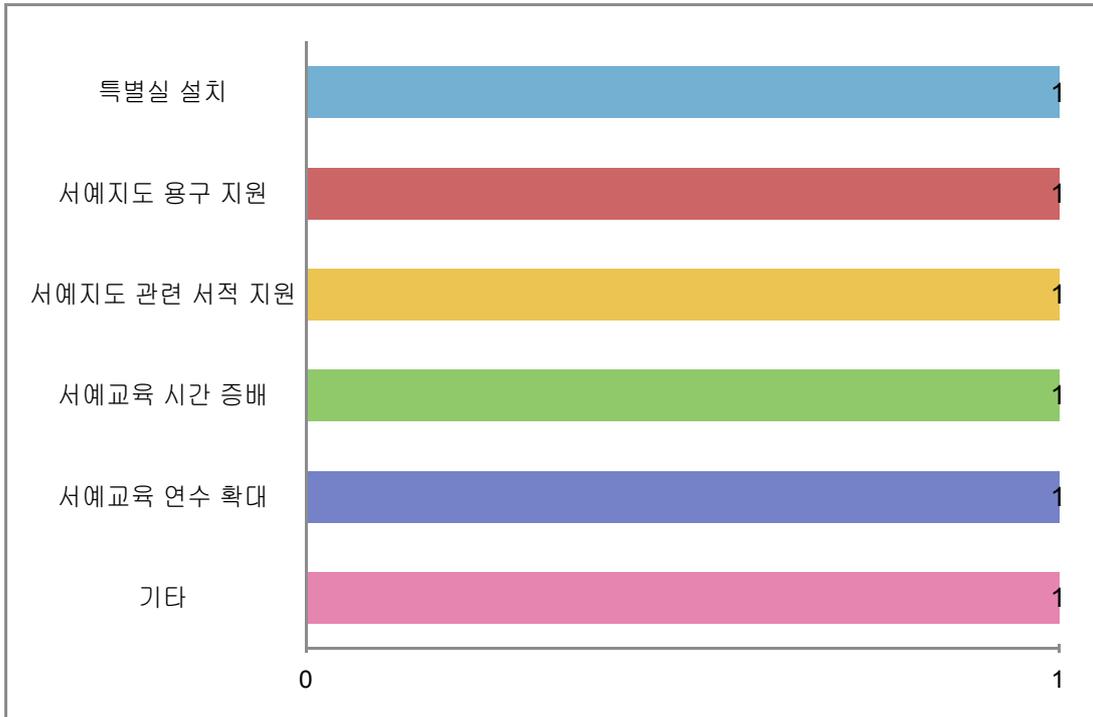
<표 II -21> 서예지도가 이루어지는 장소(N=162)



서예지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해서는 총 162명의 응답자 중 ‘서예실 또는 특별실’에서 서예지도를 한다는 응답자가 19명(12%)이었고, ‘일반교실’에서 서예지도를 한다는 응답자가 143명(88%)이었다. 즉,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서예실 또는 특별실이 없으며, 대부분의 서예지도가 일반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예 재료의 특성상 서예시간은 재료 준비과정과 아울러 서예를 하고 난 후 재료와 용구를 뒷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먹과 먹물을 사용하므로 손이나 옷 또는 교실이 더러워지기 쉬우며, 따라서 교실에서 마음 놓고 서예를 하는 것이 힘들다. 즉, 일반교실에서 서예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서예실 또는 특별실 설치 및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서예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표 II-22> 서예교육 지원 중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N=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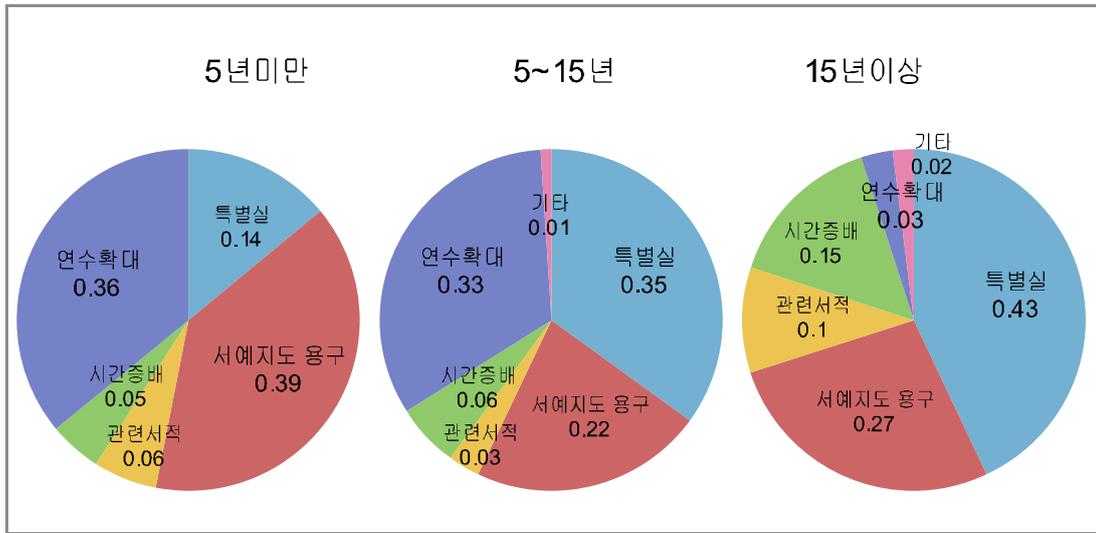


서예교육 지원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자의 29.2%가 ‘특별실 설치’와 ‘서예지도 용구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서예교육 연수 확대’가 27%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7.6%가 ‘서예교육 시간 증배’라고 응답하였고 5.8%가 ‘서예지도 관련서적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85.4%)가 ‘특별실 설치’와 ‘서예지도 용구 지원’, ‘서예교육 연수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서예 전문 강사 지원’을 통해 서예수업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서예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련한 연구를 통하여 학교에서 서예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II-23> 서예교육 지원 중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교육경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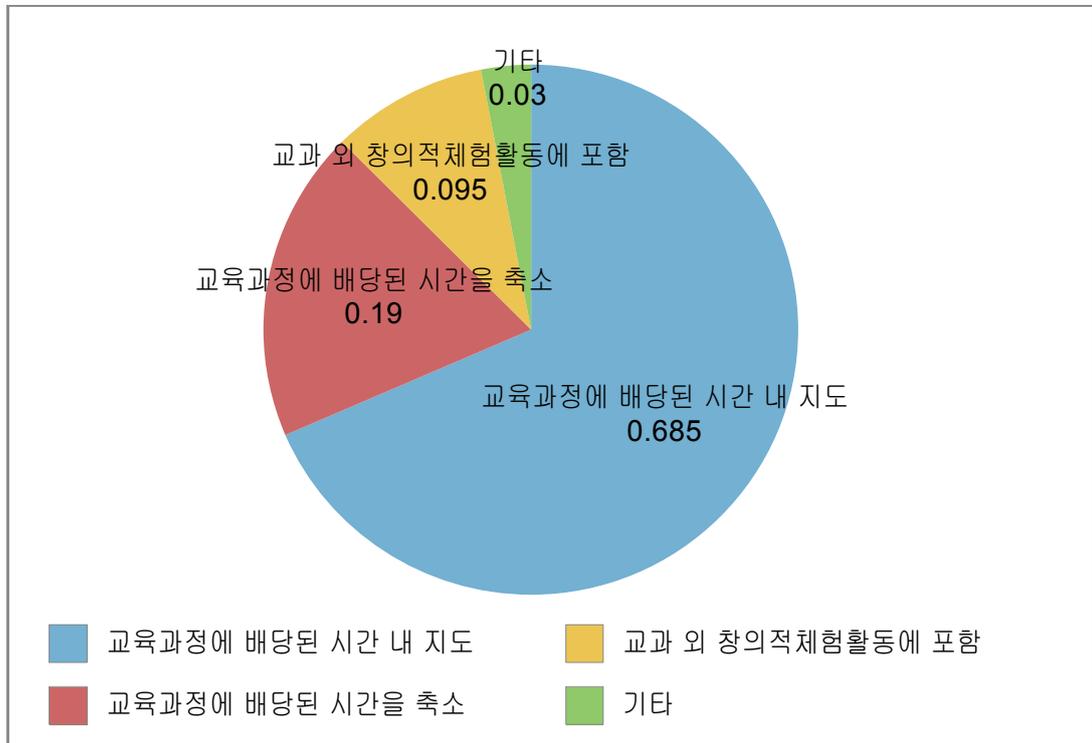
서예교육 지원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표25>에서 보듯이 높은 응답률을 보인 ‘서예지도 용구 지원’(29.2%), ‘특별실 설치’(29.2%), ‘서예교육 연수 확대’(27%)였다. 전체의 85.4%에 해당된다.

그러나 교육경력별로 분석해보면 큰 차이가 있는데, ‘서예교육 연수 확대’의 경우, 5년 미만에서는 36%였으나 5~15년에서는 33%, 15년 이상에서는 3%에 그치는 등 ‘서예교육 연수 확대’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경력이 많을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경력이 적은 교사들은 ‘서예교육 연수’가 시급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지만, 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서예교육 연수’의 확대는 그리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3%) 대신 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특별실 설치’를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별실 설치’의 경우, 15년 이상에서는 43%였으나 5~15년에서는 35%, 5년 미만에서는 14%에 그치고 있다.

다) 서예 교수·학습 지도방법

<표 II-24> 서예학습 지도시간 범위(N=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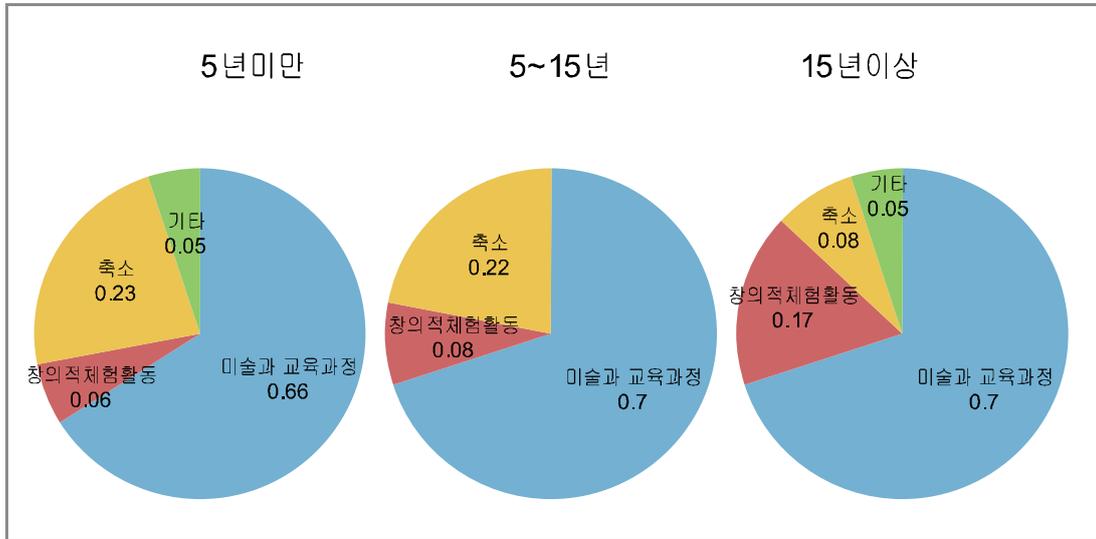


교사들의 서예학습 지도시간 범위를 묻는 질문에 68.5%의 교사가 ‘미술과 교육과정에 배당된 시간 내에서 지도한다’ 고 하였다. 그 다음 19%가 ‘미술과 교육과정에 배당된 서예시간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고, 9.5%는 ‘교과 시간 외 창의적체험활동에 포함하여 지도한다’ 고 하였다.

대부분의 교사가 교육과정에 배당된 서예시간을 활용하여 서예를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술과 교육과정에 배당된 서예시간을 축소하는 경우도 19%인 것으로 보아 서예수업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3%)으로는 아예 ‘서예 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고, ‘한 학기에 주 1시간 동안 쪽 이어서 지도한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아침활동을 활용하여 지도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 II-25> 서예학습 지도시간 범위(교육경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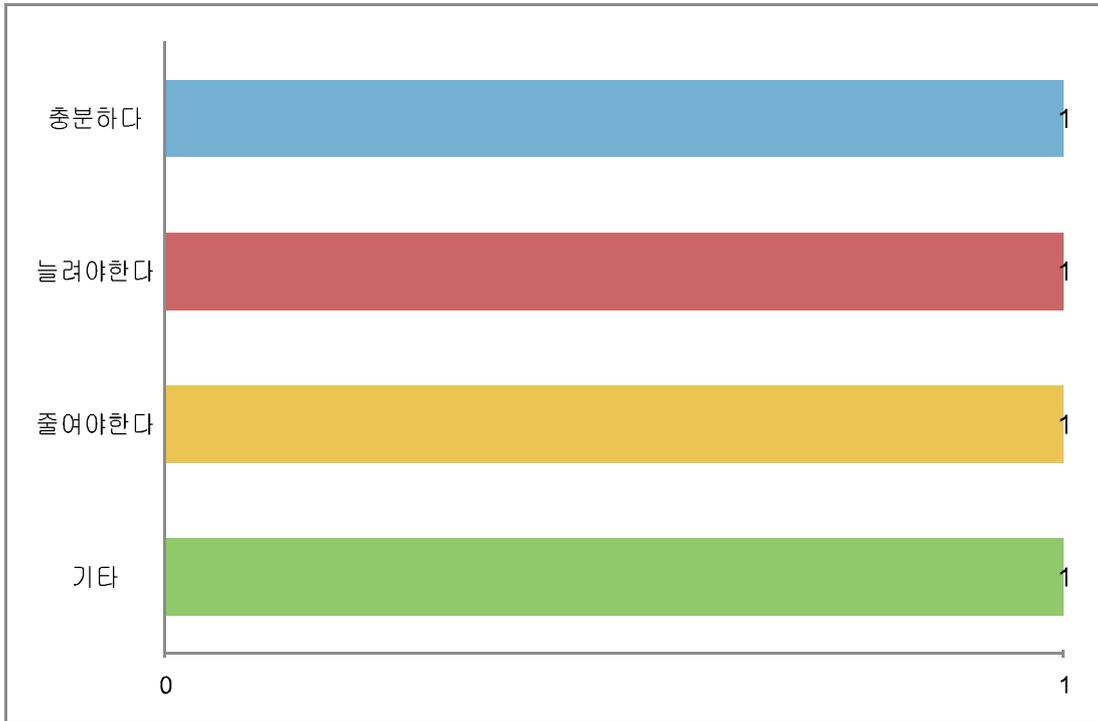


서예학습 지도시간 범위는 교육경력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다. ‘교과시간 외 창의적 체험활동 포함’하여 지도한다는 응답에 5년 미만 경력의 교사는 6%, 5~15년 경력의 교사는 8%인데 비해 15년 이상 경력의 교사는 17%의 응답률을 보였다. 즉, 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교과시간 외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서예를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술과 교육과정에 배당된 서예시간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에 5년 미만 경력의 교사는 23%, 5~15년 경력의 교사는 22%, 15년 이상 경력의 교사는 8%로 응답하였다. 즉, 경력이 적은 교사들이 서예지도시간을 축소하는 경우가 보다 많았다.

종합해보면, 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수업 시간 외에도 서예지도를 하고 있는 데 반해 경력이 적은 교사들은 수업시간을 축소하기도 하는 등 서예 수업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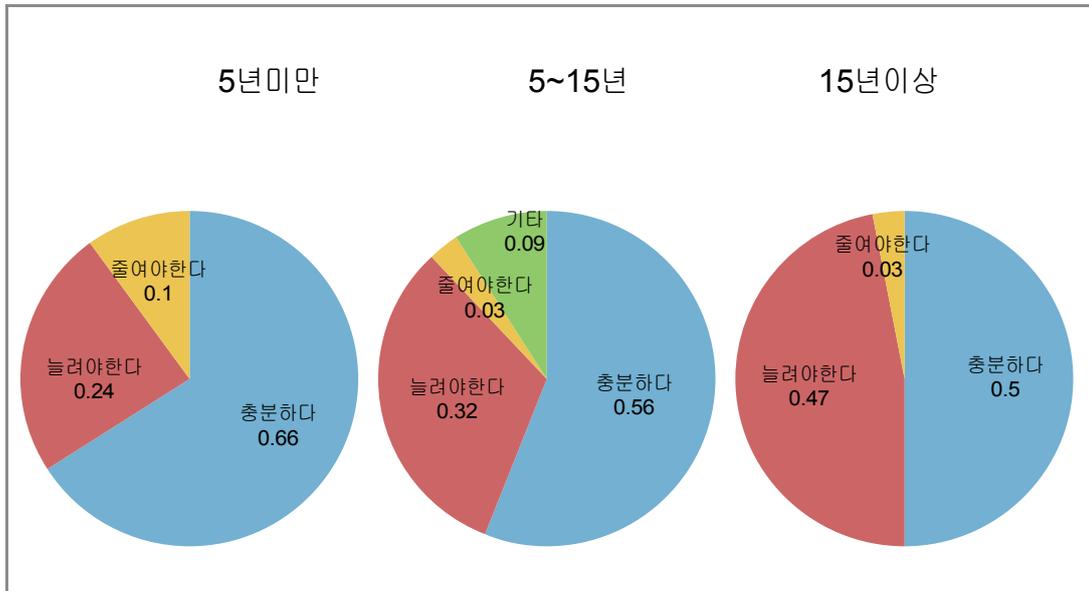
<표 II-26> 미술과 교육과정 내의 서예 배정시간에 대한 생각(N=167)



현 초등학교 3~6학년 미술시간 272시간 중에서 서예를 배우는 시간은 검정교과서 별로 다르지만 평균 19시간(미술시간 전체의 약 7%) 정도이다. 미술과 교육과정 내의 서예 배정시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8%가 ‘충분하다’고 하였으며, 33%는 ‘늘려야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5.4%는 ‘줄여야한다’고 하였다.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33%인 것으로 보아 서예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기타 의견(3.6%)로는 ‘배정된 시간에 집중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서예지도는 서예도구 준비의 번거로움과 교사의 자신감 부족으로 인하여 지도가 어려우므로 전문교사를 배치하지 않는다면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소개 수준에 그치는 서예지도라면 역시, 서예시간을 줄여야한다’고 하였으며, 아예 ‘서예시간을 교육과정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II-27> 미술과 교육과정 내의 서예 배정시간에 대한 생각(교육경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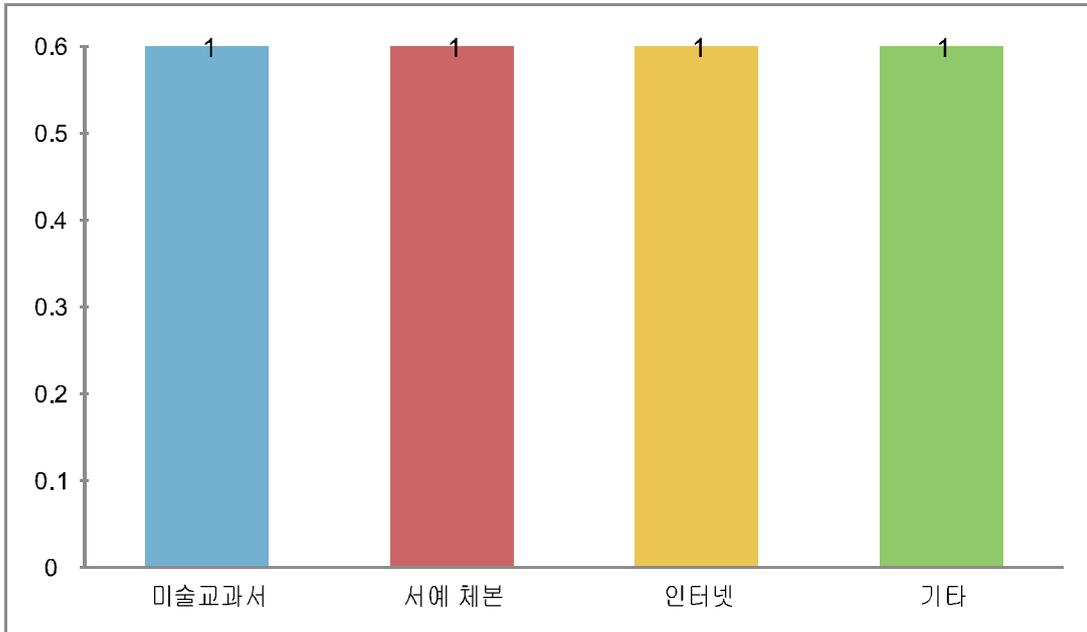


미술과 교육과정 내의 서예 배정시간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에 대하여 교육 경력별로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문항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5년 미만 교사들은 ‘충분하다’(66%), ‘늘려야한다’(24%), ‘줄여야한다’(10%)이지만, 5~15년 교사들은 ‘충분하다’(56%), ‘늘려야한다’(32%), ‘줄여야한다’(3%)로서 ‘서예시간을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증가하였으며, 15년 이상 교사들은 ‘충분하다’(50%), ‘늘려야한다’(47%), ‘줄여야한다’(3%)로서 ‘서예시간을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서예시간을 늘려야한다’는 의견의 비율이 높았다. 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오랜 교육 경험 속에서, 서예를 지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가 많이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서예시간을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II-28> 서예지도 시 활용하는 학습자료(N=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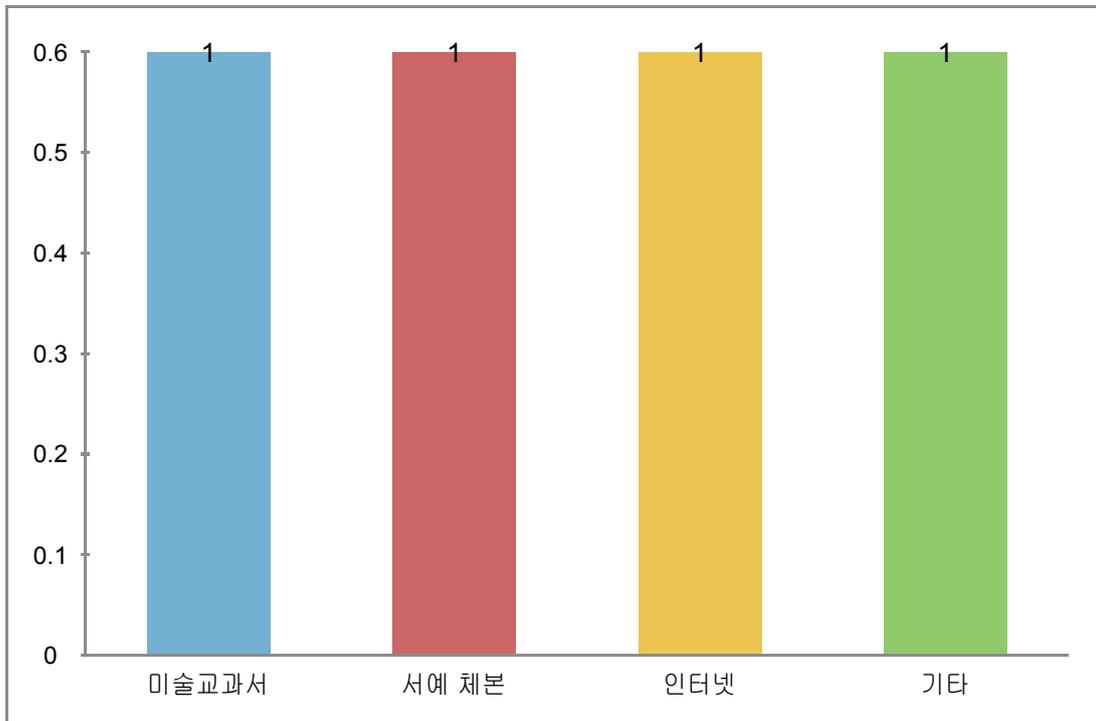


서예지도 시 활용하는 학습자료에 대해서는 총 168명 중 89명(53%)이 ‘미술교과서’를 활용한다고 하였고, ‘인터넷’이 53명(31.5%)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서예 체본을 활용한다는 교사는 21명(12.5%)이었다. 즉, 서예 체본과 같은 실제 자료보다 교과서나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력별로 보았을 때, 저 경력 교사들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고(5년 미만: 30.6%, 5년~15년: 38.5% 15년 이상: 22%), 고 경력의 교사들은 ‘서예 체본’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5년 미만: 9.7%, 5년~15년: 12.3%, 15년 이상: 17%)

기타 의견(3%)으로는 ‘직접 시범’을 보이거나 ‘손을 잡고 같이 쓰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업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서예 재료의 특성인 재료 준비 및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매직수필’을 활용하여 수업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붓에 물을 적서 매직 수필천에 쓰면 실제 먹 색깔처럼 검은 글씨는 나오지만, 곧 글씨가 사라지는 도구를 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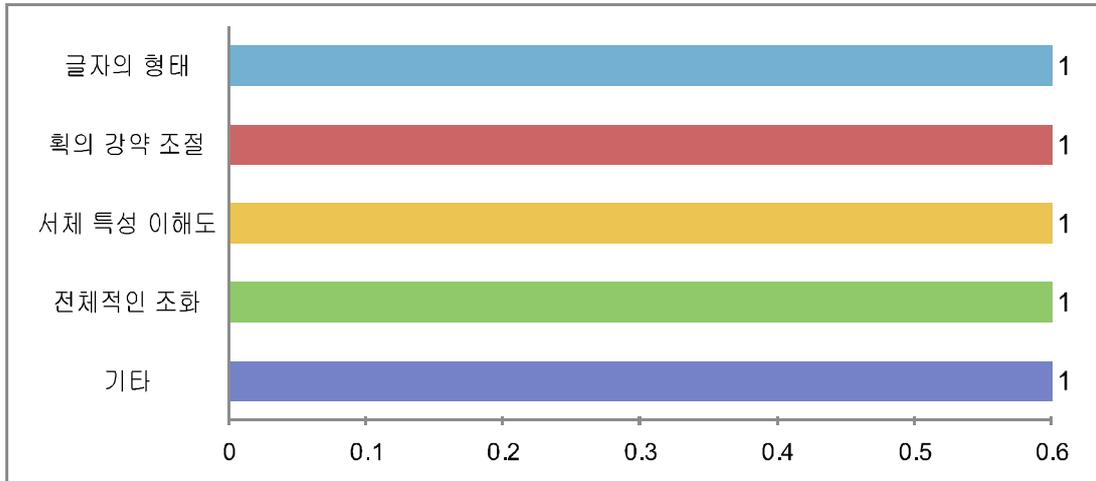
<표 II-29> 서예지도 시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학습자료(N=168)



서예지도 시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료에 대해서는 총 168명 중 84명(50%)이 ‘서예 체본’이 활용도가 높다고 하였고, ‘인터넷’이 50명(29.8%)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교과서가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26명(15.5%)이었다. 이는 곧, <표28>과 정반대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서예학습 자료는 ‘서예체본’과 같은 실물자료이나, 실제로는 실물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미술교과서’나 ‘인터넷’의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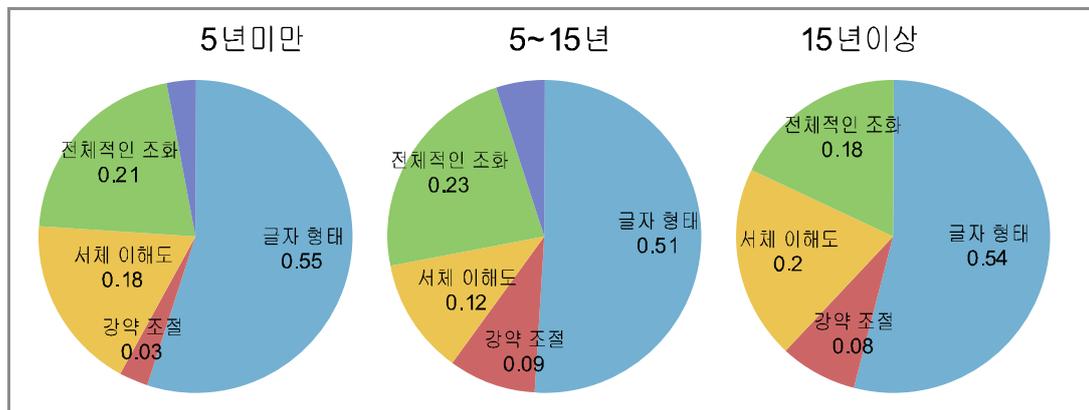
기타 의견(4.7%)으로는 ‘직접 시범’을 보이거나, ‘플래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활용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매직수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물로 쓰는 화선지’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반드시 지필묵연(紙筆墨硯)의 전통 재료를 고집하지 않더라도, 요즈음 부각되고 있는 캘리그래피 손글씨처럼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서예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해볼만 하다.

<표 II-30> 서예작품을 평가할 때 비중을 두는 관점(N=167)



서예작품을 평가할 때 비중을 두는 관점으로 응답자의 53.3%가 ‘글자의 형태’라고 하였고, 21%가 ‘전체적인 조화’라고 응답하였다. 이어 16.1%가 ‘서체 특성 이해도’에 중점을 둔다고 하였고 6.6%가 ‘획의 강약조절’에 중점을 둔다고 하였다. 기타 의견(3%)으로는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 ‘작품을 마무리하는 태도’, ‘차분하고 확실한 끝맺음’ 등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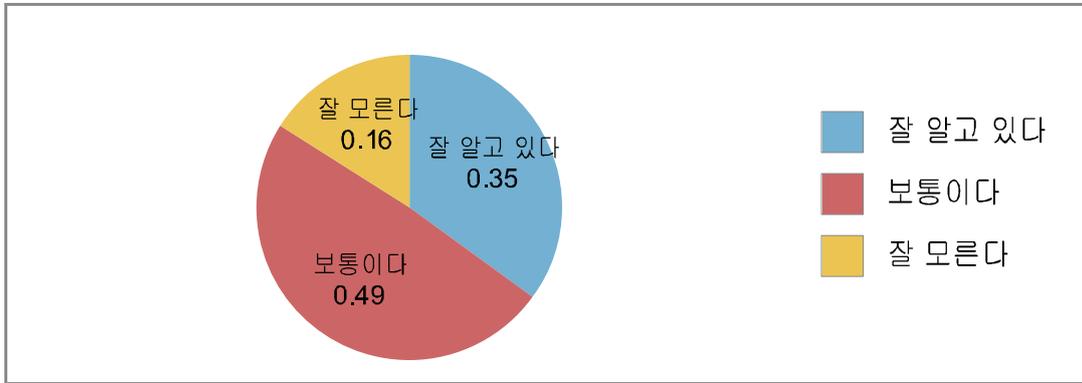
<표 II-31> 서예작품을 평가할 때 비중을 두는 관점(교육경력별)



‘글자의 형태’를 제외했을 때, 5년 미만은 ‘전체적인 조화’(21%), 5년~15년 역시 ‘전체적인 조화’(23%) 응답률이 가장 높았지만, 15년 이상은 ‘서체에 대한 이해도’(20%)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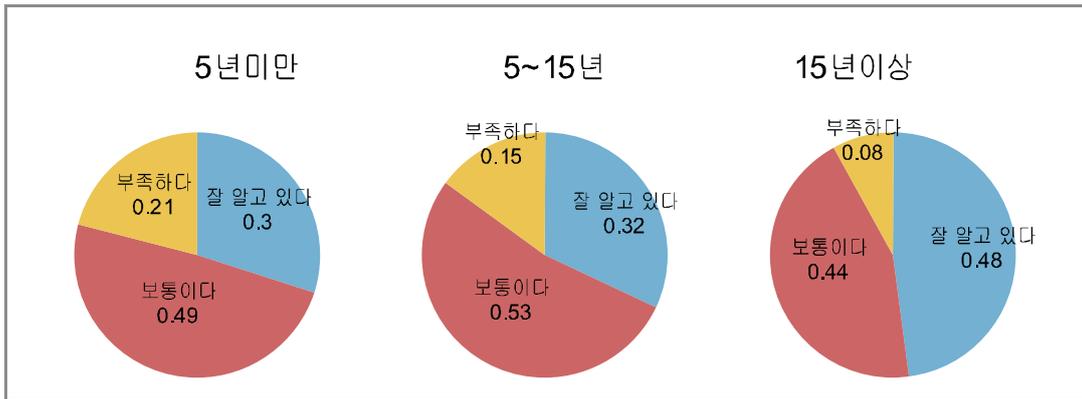
라) 교사의 서체 이해도 및 서예경험

<표 II-32> 교사의 판본체와 궁체에 대한 이해도(N=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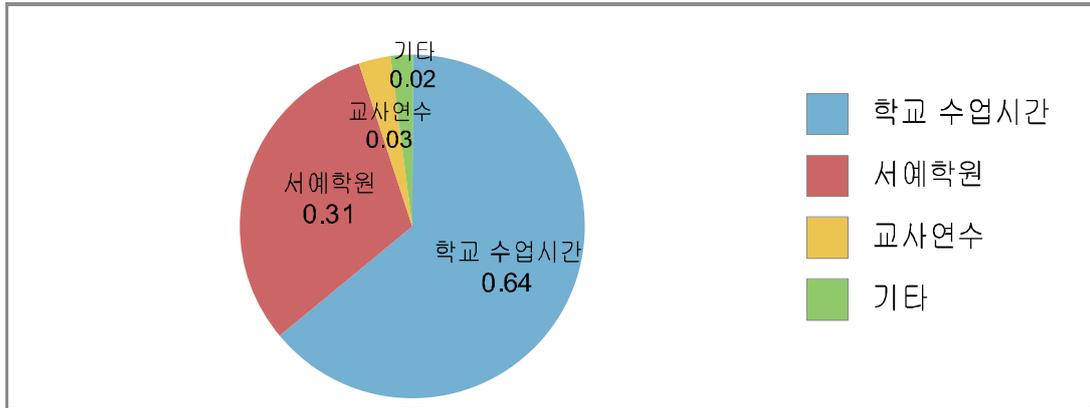
교사의 판본체와 궁체에 대한 이해도는 총 168명 중 83명(49%)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59명(35%)이 '잘 알고 있다'고 하였고, 26명(16%)이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표 II-33> 교사의 판본체와 궁체에 대한 이해도(교육경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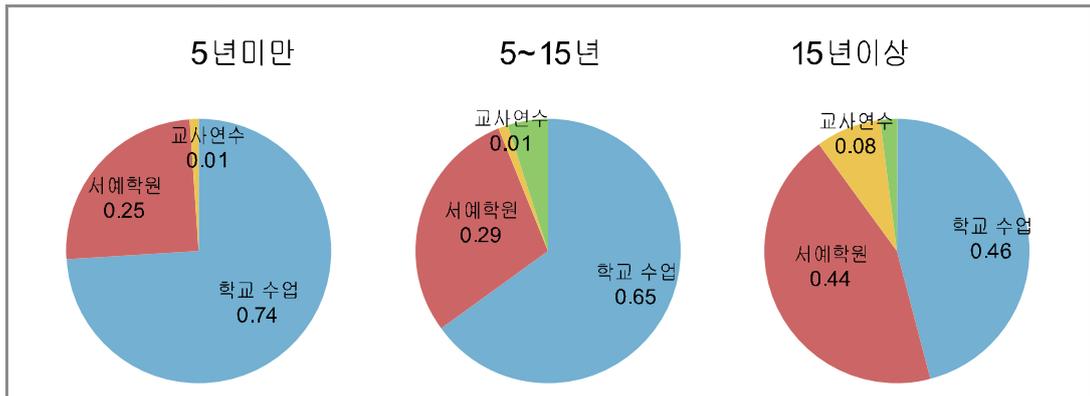
교육경력별로 '잘 알고 있다'에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5년 미만은 30%, 5년~15년은 32%, 15년 이상은 48%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부족하다'에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5년 미만은 21%, 5년~15년은 15%, 15년 이상은 8%로 줄어들고 있다. 즉, 경력이 많을수록 판본체와 궁체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4> 서예교육을 받아 본 경험(N=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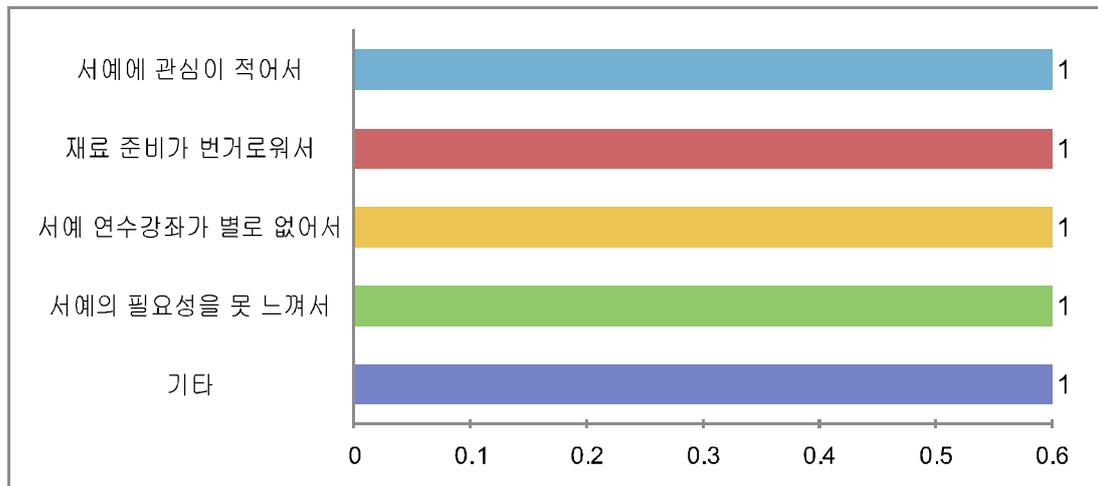
서예교육을 받아본 경험에 관해서 64%가 ‘학교 수업시간’을 통해서만 서예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서예학원’을 수강했다는 응답도 31%였다. ‘교사연수’는 3%였고, 기타 의견(2%)으로는 ‘가정학습’, ‘문화원 강의’, ‘개인적인 공부’ 등이 있었다.

<표 II-35> 서예교육을 받아 본 경험(교육경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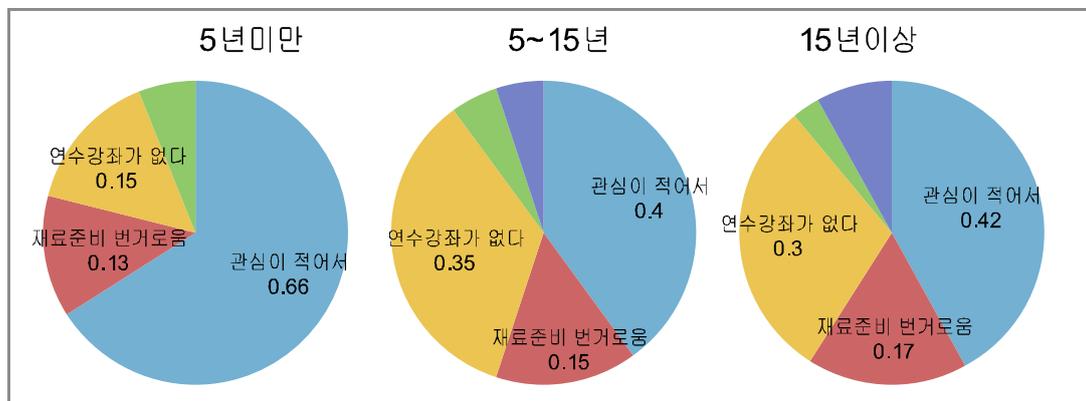
서예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교육경력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서예학원’에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5년 미만은 25%, 5년~15년은 29%, 15년 이상은 46%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학창시절 수업’에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5년 미만은 74%, 5년~15년은 65%, 15년 이상은 46%로 줄어들고 있다. 즉, 경력이 적을수록 서예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많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표 II -36> 학교수업 외 서예교육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던 이유(N=164)



학교수업 외 서예교육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던 이유로는 응답자의 50%가 ‘서예에 관심이 적어서’라고 하였다. 그리고 26.8%가 ‘서예 연수강좌가 별로 없어서’라고 하였는데, 연수를 희망함에도 강좌수가 별로 없다는 의견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14.6%는 ‘재료 준비가 번거로워서’ 라고 응답하였고 4.9%는 ‘서예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라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3.7%)으로는 ‘시간이 모자라서’, ‘서예교육의 의의와 목적 및 필요성과 당위성이 부족해서’ 라고 하였다.

<표 II -37> 학교수업 외 서예교육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던 이유(교육경력별)



교육경력별로 분석해 보면, 서예연수를 선택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관심이 적어서’(66%)인데, 특히 5년 미만 교사의 응답률이 66%로 매우 높다.

다. 교사의 서예교육 실태 종합분석

1) 서예교육의 필요성 인식

설문 응답자 중 66%의 교사는 서예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33%는 보통, 3%는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서예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점에 대하여 ‘정서순화 및 침착한 태도’가 56.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 ‘바른 글씨 익히기’가 29.3%로 그 뒤를 이었다. 결국, 서예가 도움을 주는 점으로 ‘정서순화 및 침착한 태도’와 ‘바른 글씨 익히기’가 85.8%로 압도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정서순화 및 침착한 태도’와 ‘바른 글씨 익히기’는 서예교육의 분명한 효과이며 장점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서예에 담긴 여러 가지 장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정서순화’와 ‘바른 글씨’의 기능에만 얽매어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서순화’와 ‘바른 글씨’가 서예의 유일한 장점이라면, 서예가 반드시 교육과정에서 미술과에 편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서예를 문과교육으로 보며, 대만에서는 국어과의 한 영역으로 보며, 중국에서는 글쓰기의 규범성을 강조하는 서법이 일반적인 공식명칭으로 되어있고, 서예는 서예술(書藝術)로서 대학에 가서 공부한다고 한다.²⁸⁾ 서예가 미술과에 편제되기 위해서는 서예의 미적 가치 등 여러 가지 장점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문서예 포함에 대한 내용에는 83.8%의 교사가 한글만 가르쳐도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제한된 시간과 교육환경 속에서 서예지도의 어려움이 많고 한글서예 지도에 부담을 느끼는 교사가 많이 있는 현실이지만, 한문서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점을 알릴 수 있다면, 한문에 대한 거부감이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한다.

2) 서예지도 어려움 분석

대부분의 교사들은 ‘재료준비 및 뒷정리(44.4%)’가 가장 힘들다고 하였는데, 특히 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특별실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특별

28) 이동민, 2011, p.18.

실 설치'는 서예 재료의 준비 및 뒷정리의 어려움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표현의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서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원되는 학교는 많지 않다. 설문조사 결과 서예지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88%가 일반교실이었으며 12%만이 특별실에서 서예를 지도한다고 하였다.

교사 '본인의 능력이 미흡(29.8%)'하기 때문에 서예지도가 어렵다는 응답은 경력이 적은 교사일수록 비율이 높았다. 연령 및 교육경력이 적을수록 서예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경력이 적은 교사들은 '서예교육 연수의 확대'를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서예교육 연수의 확대'에 대하여 시급함을 느끼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서예연수의 효과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서예를 기피하거나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37.1%가 '단기간에 실력향상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미술과 교육과정에 배당된 서예시간은 3~4학년 10시간, 5~6학년 10시간 정도이다. 더군다나, 아래 <표>에서 보듯이 교육과정을 개정할수록 서예배당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07,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배당된 시간을 교사들의 재량에 따라 지도하도록 하고 있지만 1년에 5시간 정도를 배워서 서예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표Ⅱ-38> 교육과정별 서예배당시간 및 비율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제7차 교육과정	8/64 (12.5%)	8/64 (12.5%)	8/64 (12.5%)	6/64 (9.4%)
2007 개정교육과정	10/136 (7.3%)		10/136 (7.3%)	
2009 개정교육과정	9/136 (6.6%)		.	

3) 서예 교수·학습 지도방법 분석

대부분의 교사들은 미술과 교육과정 내의 서예 배정시간(학년 당 5시간 정도)에 대해 충분하다(58%)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미술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시간 내에서(68.5%) 서예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경력이 많을수록 서예배정시간을

늘려야 한다(47%)는 비율이 높았으며 실제로 교과시간 외 창의적체험활동에 포함하여 지도한다(17%)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경력이 적을수록 서예배정시간을 줄여야 한다(10%)는 비율이 높았으며 실제로 서예배당 시간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다(23%)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즉, 서예지도에 부담감을 느끼는 교사(특히 경력이 적은 교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서예학습 자료는 ‘서예체본(50%)’과 같은 실물자료이나, 실제로는 ‘미술교과서(53%)’나 ‘인터넷(31.5%)’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교사들의 35%가 서예교육 지원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 ‘서예용구 및 관련 서적 지원’을 꼽은 것으로 보아 서예수업자료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예작품을 평가할 때 비중을 두는 관점에 대하여 53.3%가 ‘글자의 형태’, 21%가 ‘전체적인 조화’, 16.1%가 ‘서체특성 이해도’라고 응답하였는데, 기타의견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 ‘작품을 마무리하는 태도와 차분한 끝맺음’ 등이 많이 있었다. 이는 곧,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기능적인 면 외에 성실한 자세와 차분하고 예의바른 태도에도 큰 비중을 두는 인성교육으로서의 서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교사의 서체 이해도 및 서예경험

교사의 판본체와 궁체에 대한 이해도는 ‘보통’이 49%, ‘잘 알고 있다’가 35%, ‘잘 모른다’가 16%였다. 그러나 경력이 많을수록 이해도는 높아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교수업시간을 통해서만 서예교육을 받았다(64%)고 응답하였다. 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44%가 서예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지만, 경력이 적은 교사들은 25%로 다소 낮았다. 학교수업 외 서예교육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던 이유로는 50%가 ‘서예에 관심이 적어서’라고 하였다. 특히, 경력이 적은 교사들의 응답률이 66%로 가장 높았다. 서예교육의 효과를 인정하고 서예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인식하고 있지만, 관심은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 서예교육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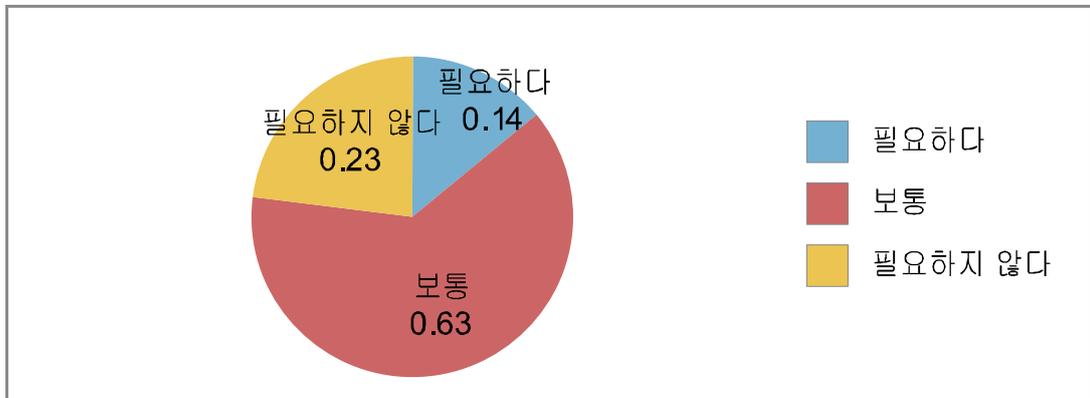
또한, 서예연수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27%임에도 불구하고, 서예연수강좌가 별로 없어서 연수를 선택하지 못했다는 교사들도 26.8%인 것으로 보아 교사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연수를 많이 개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라. 학생 인식 실태 분석

1) 4~6학년 학생 대상 설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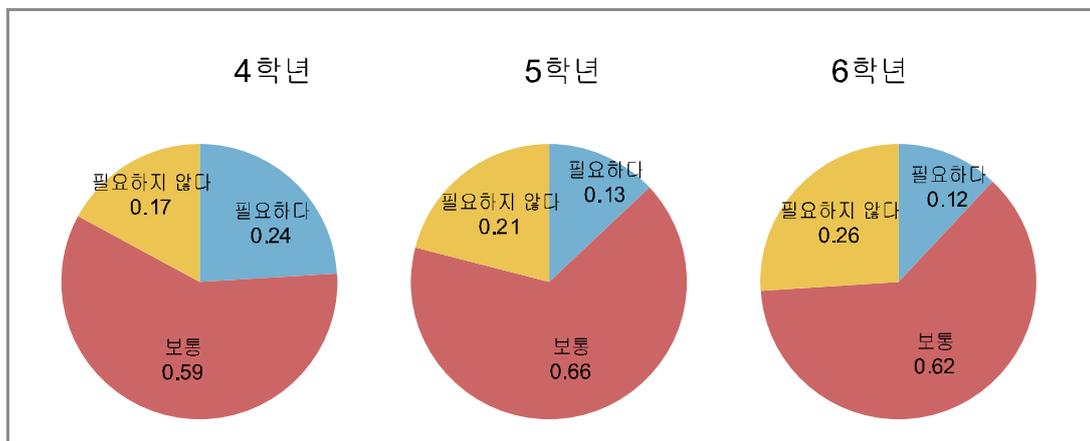
가) 서예학습의 필요성 인식

<표 II-39> 서예학습의 필요성(N=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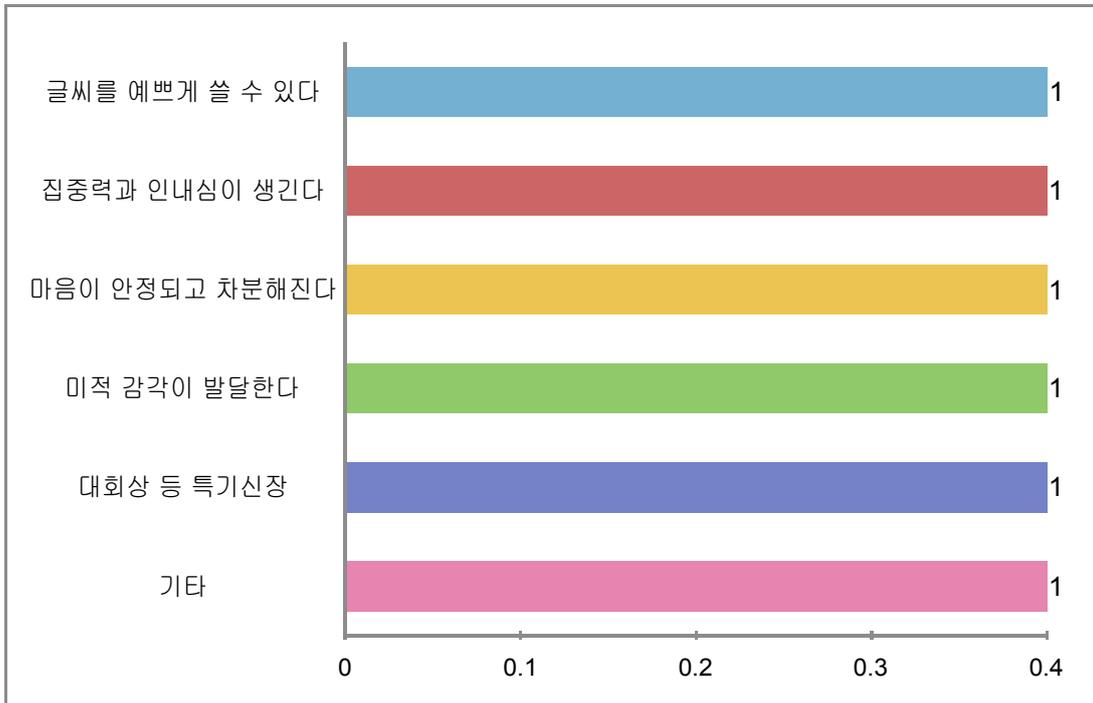
서예학습의 필요성에 대하여 63%의 학생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23%였으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14%에 불과하였다.

<표 II-40> 서예학습의 필요성(학년별)



학년별로 살펴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서예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서예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줄어들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늘어나고 있었다.

<표 II-41> 서예를 하면 좋은 점(N=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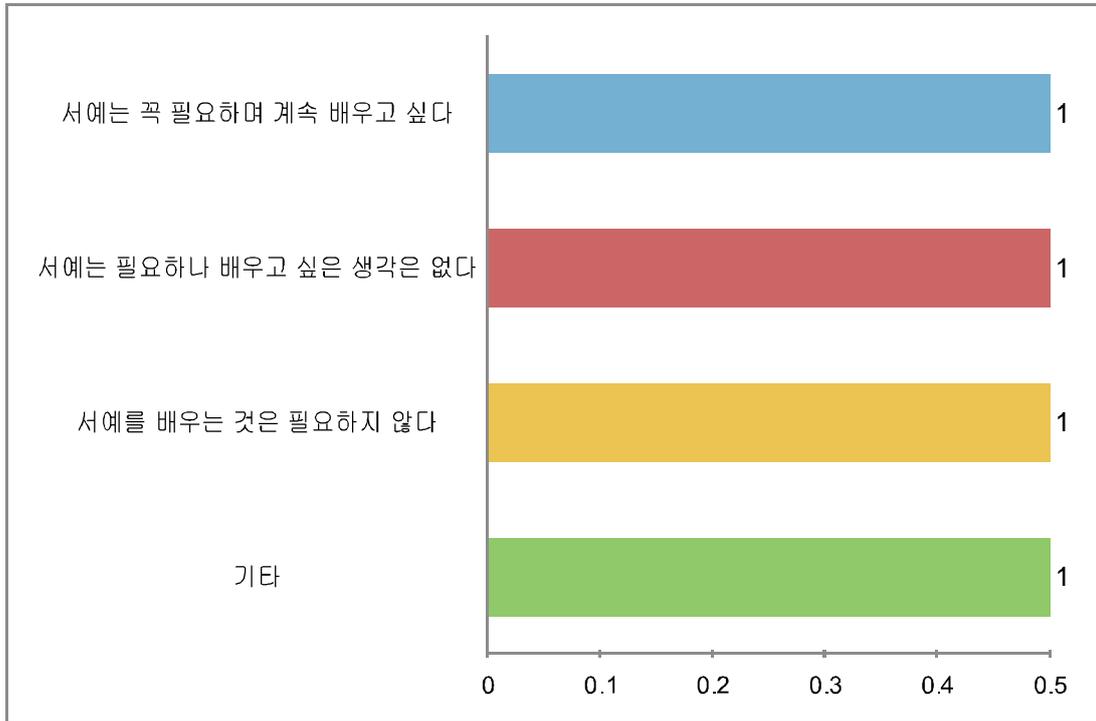


서예를 하면 좋은 점에는 39.6%의 학생이 ‘집중력과 인내심이 생긴다’라고 응답하였고, 그 뒤를 이어 ‘글씨를 예쁘게 쓸 수 있다’(24.6%), ‘마음이 안정되고 차분해진다’(19%)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대회상 등 특기신장’(5.5%), ‘미적 감각이 발달한다’(5.4%)가 그 뒤를 이었고 기타는 5.9%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재미있고 신기하다’, ‘글씨 종류를 다양하게 알 수 있다’ (이상 4학년), ‘옛 우리 조상들이 쓴 글씨체를 알고 쓸 수 있다’, ‘서예도 하나의 체험이다’, ‘화가 진정된다’ (이상 5학년), ‘글씨를 잘 쓰면 내가 대견스러워진다’, ‘한자를 알 수 있다’ (이상 6학년) 등의 의견이 있었다.

서예를 하면 좋은 점에 관하여 학년별로 분석하였을 때에는 특별히 부각되는 차이점은 없었으나 ‘대회상 등 특기신장’ 문항에서 4학년(2%), 5학년(2%)과 비교하여 6학년(8%)의 응답 비율이 다소 높은 걸로 보아 6학년이 되어 진로와 특기 적성에 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42> 서예 학습 필요성 인식과 서예 학습 희망도(N=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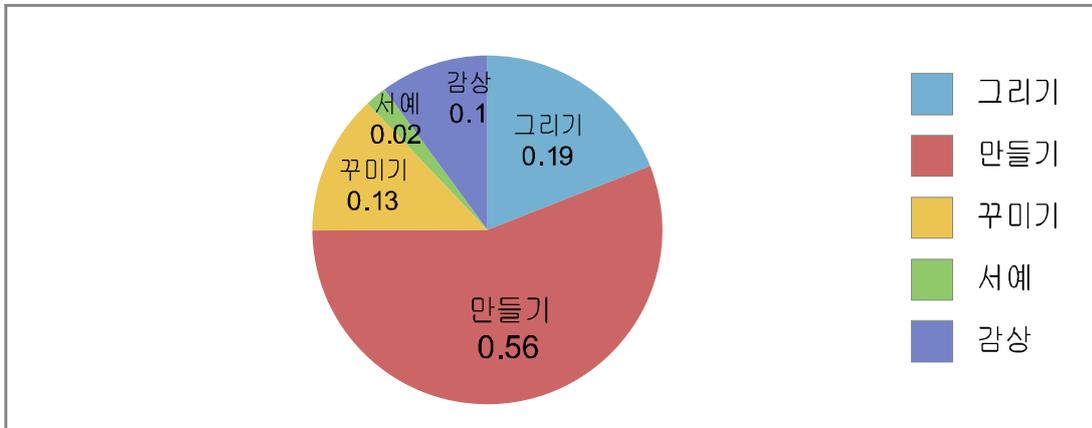
서예 학습 희망도를 묻는 질문에 50%의 학생이 ‘서예는 필요하나 배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응답하였고, 24%의 학생이 ‘서예를 배우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20%의 학생이 ‘서예는 꼭 필요하며 계속 배우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즉, 70%의 학생은 서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그냥 배우고 싶다’, ‘가끔 배우고 싶다’, ‘배울 수 있다면 배우겠다’, ‘학교에서 하는 대로 하겠다’, ‘배울 시간이 없다’, ‘부모님께서 서예보다 공부 중요하다고 했다’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필요하지 않지만 배우고 싶다’라는 의견이 4,5,6학년에서 고루 나온 것으로 보아 서예교육의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확실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로 분석을 해 보면, 서예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4학년 77%, 5학년 70%, 6학년 67%) 낮아지고 있으며, 서예학습 희망도 역시 학년이 올라갈수록(4학년 31%, 5학년 18%, 6학년 17%) 낮아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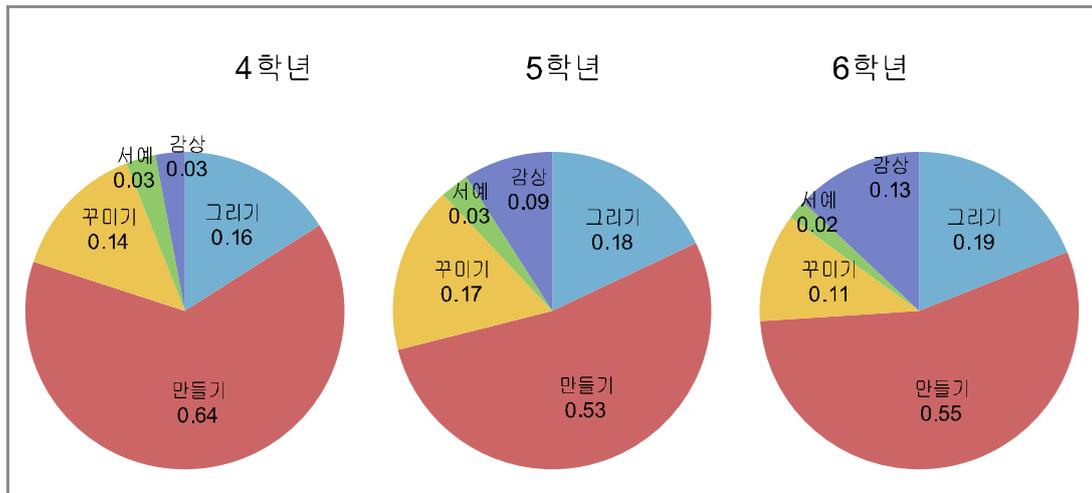
나) 서예학습의 어려움 인식

<표 II-43> 미술과 영역 중 가장 좋아하는 영역(N=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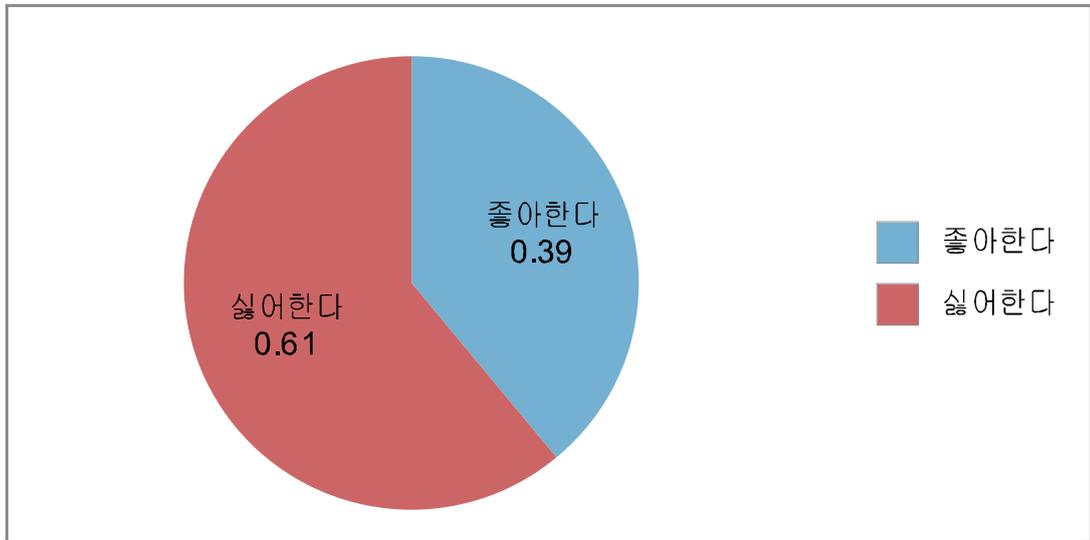
미술과 영역 중 가장 좋아하는 영역으로는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만들기(56%)를 선호하였고, 그 다음 그리기(19%), 꾸미기(13%), 감상(10%) 순이었으며 서예는 2%에 불과하였다.

<표 II-44> 미술과 영역 중 가장 좋아하는 영역(학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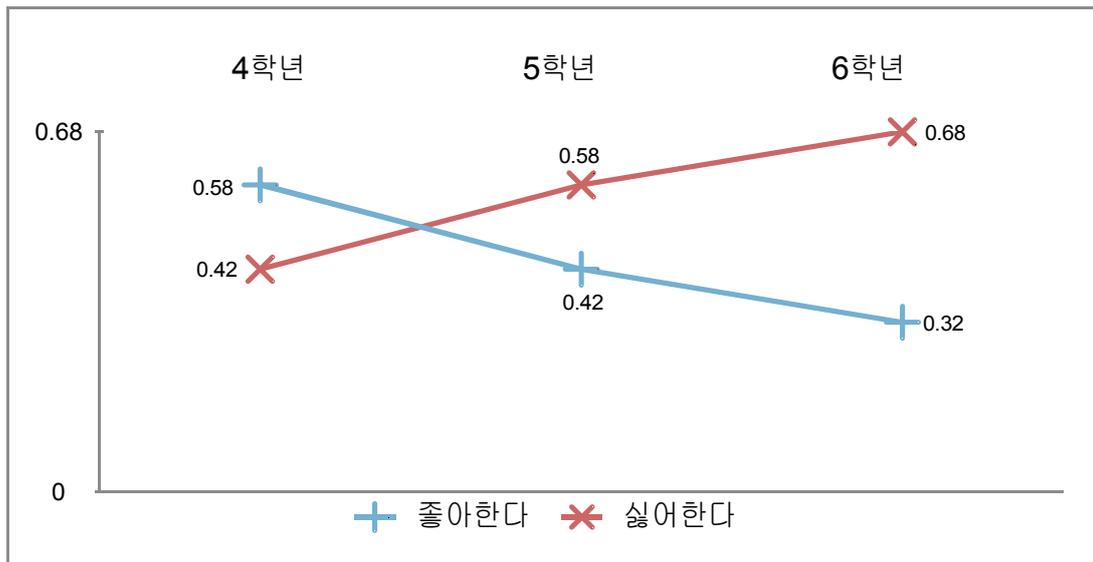
학년별로 분석해 보면, 모든 학년에서 ‘만들기’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기’와 ‘감상’ 영역의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45> 서예학습시간 선호도(N=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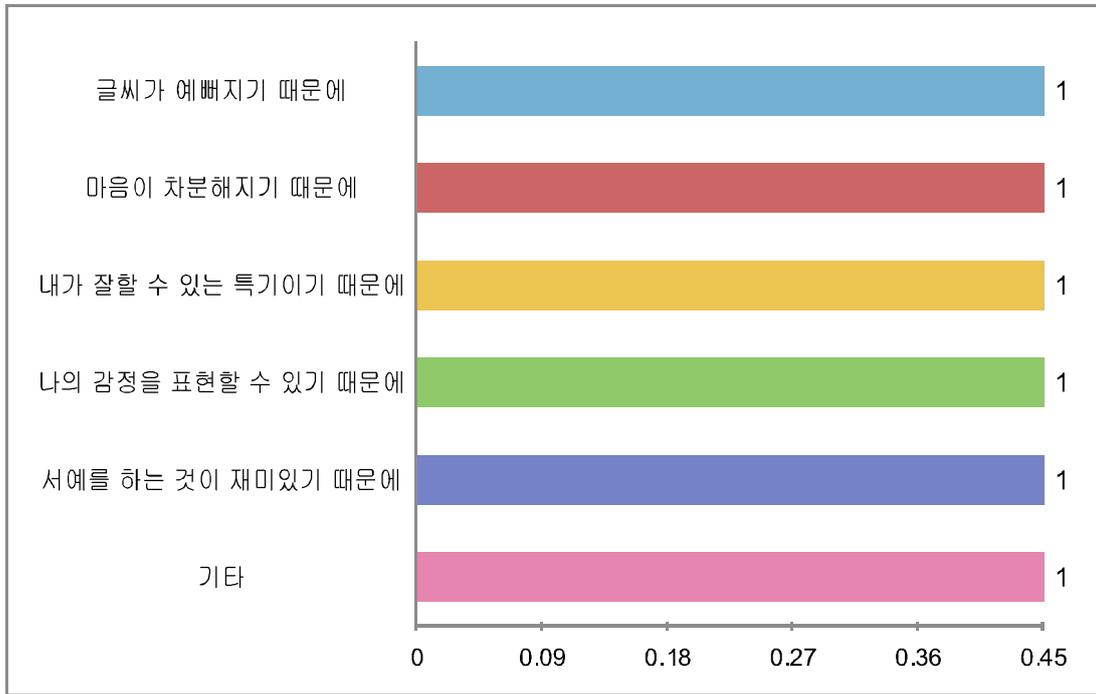
서예학습시간 선호도와 관련하여 ‘좋아한다’는 의견이 39%, ‘싫어한다’는 의견이 61%로 서예학습시간을 싫어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표 II-46> 서예학습시간 선호도(학년별 변화)



학년별로 분석하였을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서예학습시간을 좋아하는 학생 수는 줄어들고, 서예학습시간을 싫어하는 학생 수는 늘어남을 알 수 있다.

<표 II-47> 서예학습시간을 좋아하는 이유(N=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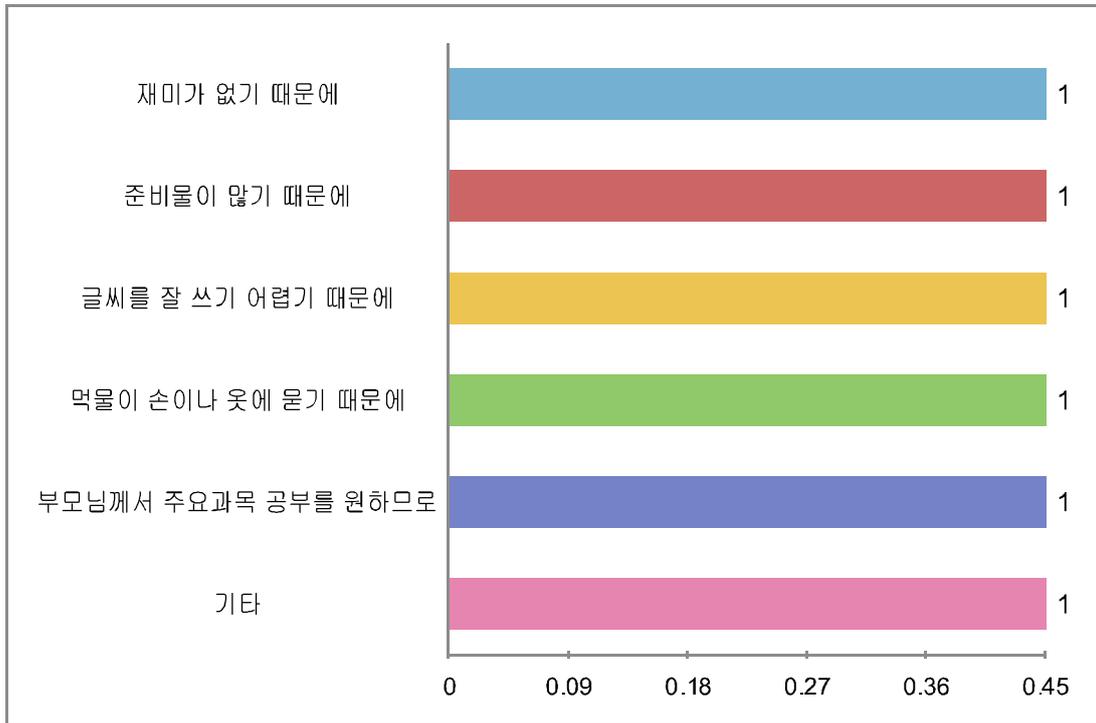


서예학습시간을 좋아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이유로는 ‘마음이 차분해지기 때문에’가 42.4%로 가장 높았고, ‘글씨가 예뻐지기 때문에’가 25.7%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 ‘서예를 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10.1%),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9.8%), ‘내가 잘할 수 있는 특기이기 때문에’(1.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10.5%)으로는 ‘재미있고 신기해서’, ‘글 쓰는 능력이 발달 되서’, ‘옛 글씨를 알 수 있어서’ (이상 4학년), ‘준비하는 과정이 재미있고 글씨 쓰는 것이 좋아서’, ‘집중력과 인내심을 기를 수 있어서’, ‘집에 장식할 수 있어서’ (이상 5학년), ‘떡 가는 것이 재미있어서’, ‘글씨가 예쁘게 써지면 내가 대견해져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좋아서’ (이상 6학년)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학년별로 분석했을 때, 4학년의 경우 ‘마음이 차분해지기 때문에’, ‘글씨가 예뻐지기 때문에’ 문항에 79%의 응답률이 나왔으나 5학년은 63%, 6학년은 65%의 응답률을 보였다. 즉, 5,6학년은 4학년에 비하여 서예시간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비교적 다양하게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I-48> 서예학습시간을 싫어하는 이유(N=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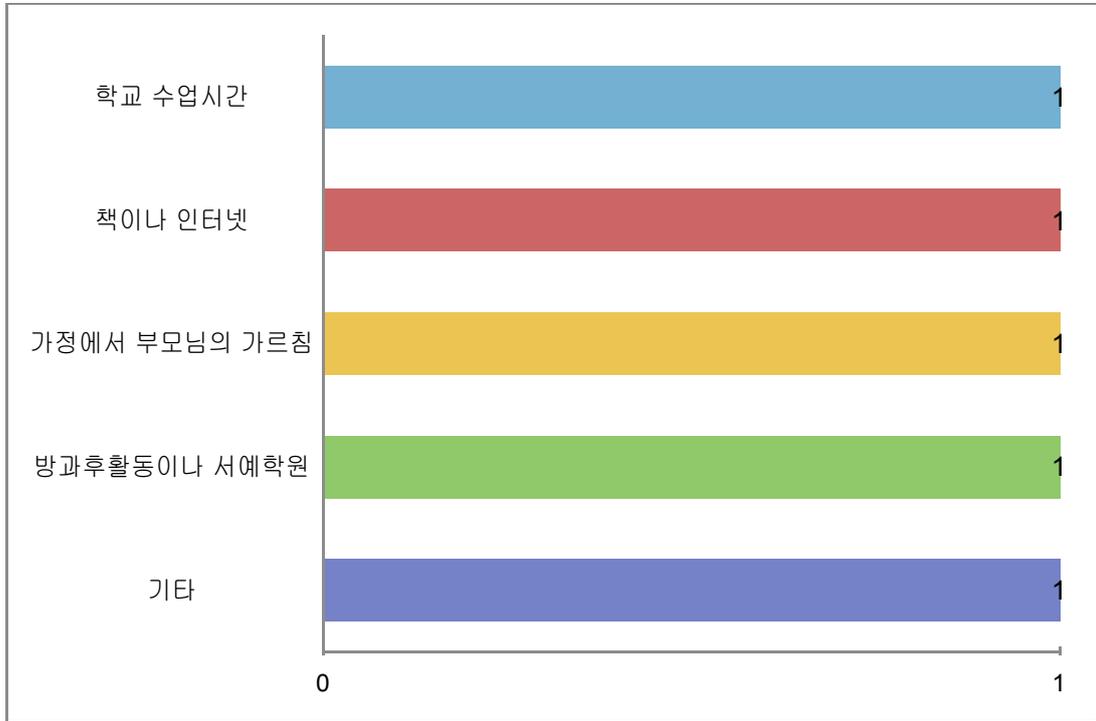
서예학습시간을 싫어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이유로 40.6%의 학생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라고 하였다. 27.5%의 학생이 ‘먹물이 손이나 옷에 묻기 때문에’라고 하였으며, 21.7%의 학생이 ‘글씨를 잘 쓰기 어렵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4.8%의 학생이 ‘준비물이 많기 때문에’, 2.2%의 학생이 ‘부모님께서 주요과목 공부를 원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다.

기타(3.2%)의견으로는 ‘서예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하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이상 4학년), ‘배울 필요가 없어서’, ‘머리가 아파서’, ‘팔이 아파서’ (이상 5학년), ‘지루해서’, ‘정리하기 어려워’, ‘너무 어려워’, ‘관심 없음’ (이상 6학년) 등의 의견이 있었다.

서예학습을 싫어하는 이유는 학년별로 큰 차이가 있었는데 가장 많이 응답한 문항을 비교했을 때, 4학년은 ‘글씨를 잘 쓰기 어렵기 때문에’(43.7%), 5학년은 ‘먹물이 손이나 옷에 묻기 때문에’(33.3%), 6학년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49.6%)로 응답하였다.

다) 서예학습의 방법

<표 II-49> 서예를 배울 기회(N=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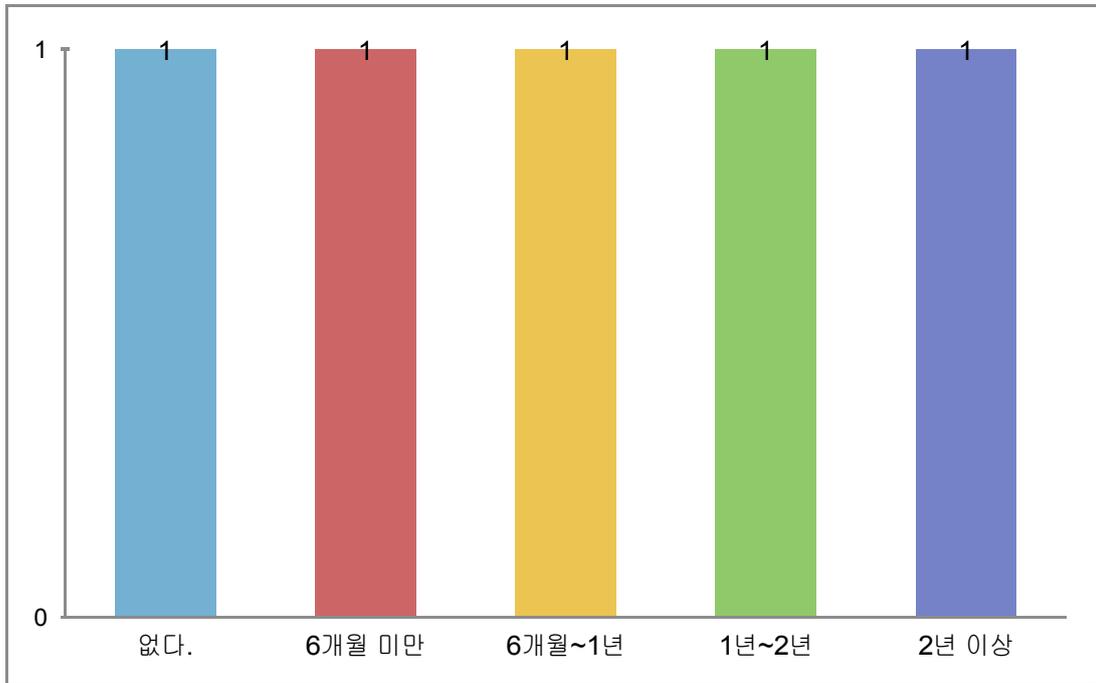


서예를 배울 기회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학생이 ‘학교수업시간을 통해서만’(88.5%)이라고 응답하였다. ‘방과후활동이나 서예학원’은 5%, 기타 3.5%, ‘책이나 인터넷’은 1.6%, ‘가정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은 1.4%로 학생들이 서예를 배울 기회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미술책을 보고 배움’, ‘방학과제로 해봄’, ‘일본학교에서 일주일에 1번 배움’(이상 6학년) 등이 있었으며 심지어 4,5학년에서는 ‘배운 적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도 있었다.

학년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며 4학년은 ‘학교수업시간을 통해서만’ 서예를 배웠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91.3%이고 ‘방과후활동이나 서예학원’은 1.9%인 반면, 5,6학년은 ‘방과후활동이나 서예학원’이 각각 5.8%, 5.6%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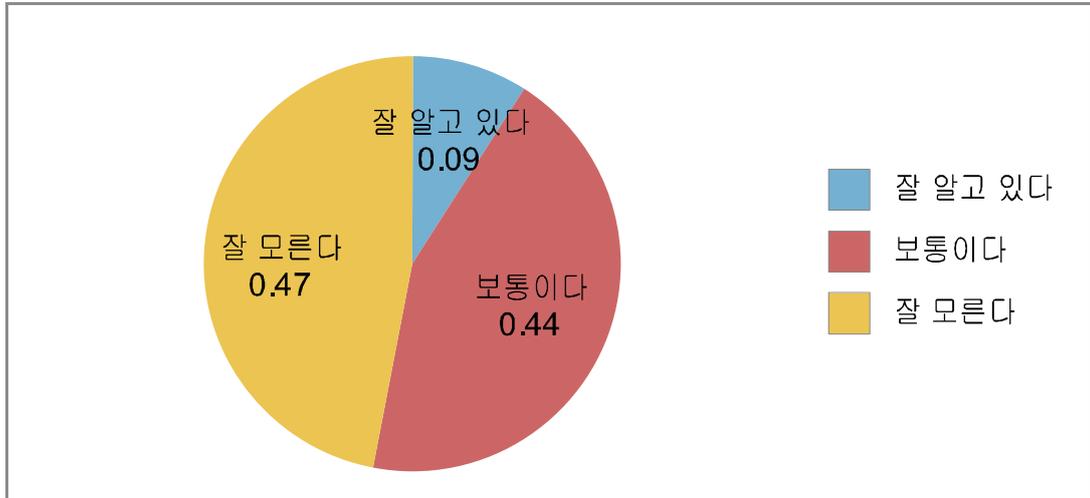
<표 II -50> 서예학원 수강 경험(N=635)



서예학원 수강 경험 역시 거의 모든 학생이 ‘없다’(92.9%)고 응답하였다. 서예학원을 다녀본 학생은 7.1%였으며 ‘6개월 미만’이 2.7%, ‘2년 이상’이 2.1%, ‘1년~2년’이 1.4%, ‘6개월~1년’이 0.9%로 서예학원에 다녀본 경험은 거의 없었다. 즉,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수업을 통해서만 서예를 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서예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구성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서예에 흥미를 느끼고 서예의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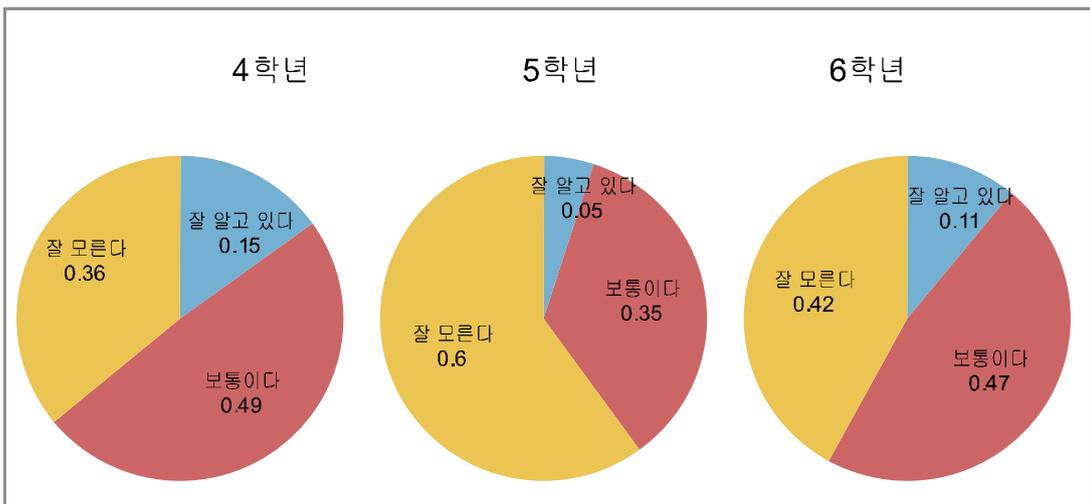
학년별로 비교하였을 때에는 서예학원 수강경험 ‘있음’이 4학년은 1%, 5학년은 7%, 6학년은 9%로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서예학원 수강 경험 비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6학년은 ‘2년 이상’ 수강한 비율이 3.4%로 비교적 높았다.

<표 II -51> 판본체에 대한 이해도(N=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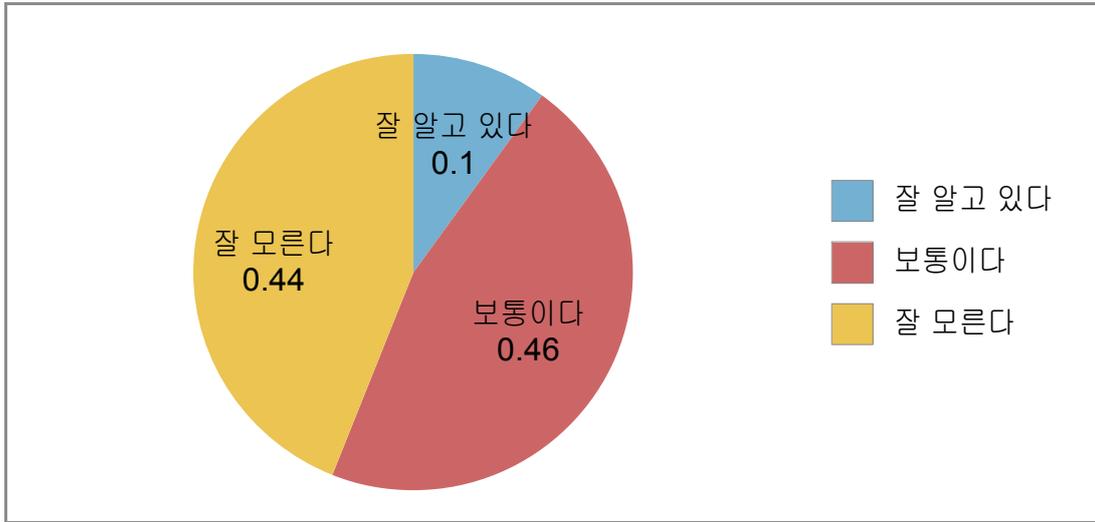
초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3학년부터 배우는 판본체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항에 47%의 학생이 ‘잘 모른다’고 하였고, 44%의 학생이 ‘보통이다’, 9%의 학생이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표 II -52> 판본체에 대한 이해도(학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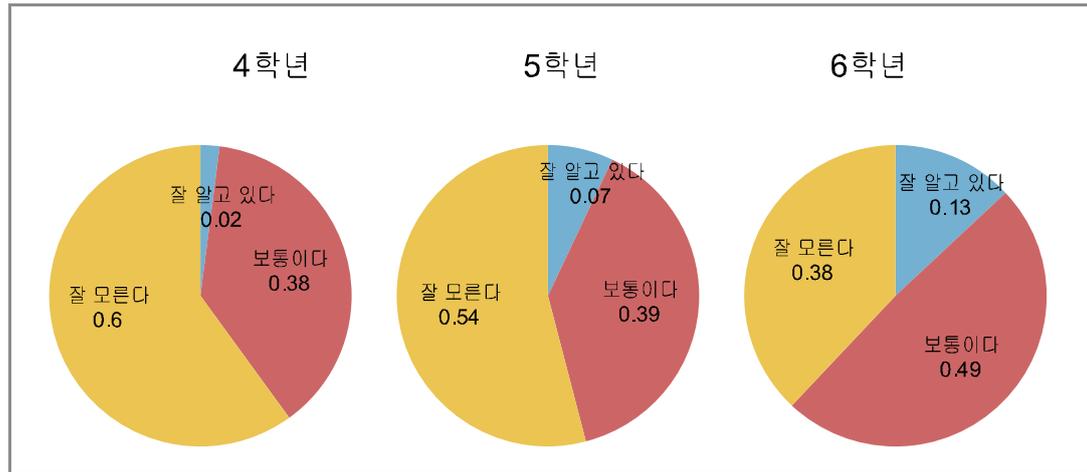
학년별로 보았을 때, 3학년 교육과정부터 판본체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학년보다 5,6학년이 오히려 판본체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 이는 서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학습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표 II -53> 궁체에 대한 이해도(N=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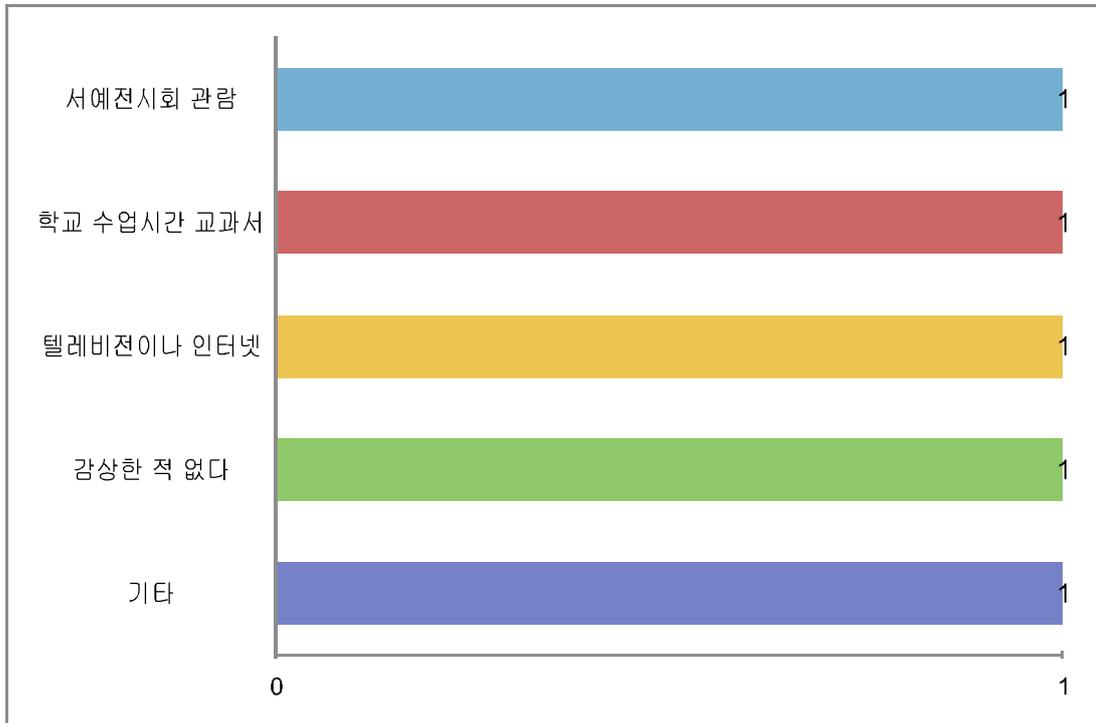
초등학교 교육과정 6학년에 배우는 궁체에 대해서는 ‘보통이다’ 46%, ‘잘 모른다’ 44%, ‘잘 알고 있다’ 10%로 나타났다.

<표 II -54> 궁체에 대한 이해도(학년별)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6학년에서 궁체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업시간에만 서예를 배우며, 초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6학년에 궁체를 배우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다. 그러나 궁체 역시 판본체와 마찬가지로 ‘모른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 -55> 서예작품 감상기회(N=646)



서예작품 감상기회는 절반이 넘는 55.6%의 학생이 ‘학교 수업시간 교과서’라고 응답하였다. 그 뒤를 이어 ‘감상한 적 없다’ 16.6%, ‘서예전시회 관람’이 13.8%,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 11.4%, 기타 2.6%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유치원 서예반에서 배움’ (이상 4학년), ‘학교전시회 및 공연에서 본 적이 있음’,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다’, ‘부모님이 가져온 서예 전시회 도록에서 서예작품을 보았다’ (이상 5학년), ‘서예학원에서 보았다’, ‘길거리 전시회에서 본적이 있음’ 등이 있었다.

학년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다만 6학년의 ‘학교수업시간 교과서’ 비율이 59%로 평균보다 다소 높았으며,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비율이 8.3%로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서 외 서예 감상 기회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라. 학생의 서예학습 실태 종합분석

1) 서예학습의 필요성

학생들의 63%가 서예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23%가 ‘필요하지 않다’, 1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필요하다’는 응답은 줄어들고(24%→12%),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늘어나고(17%→26%) 있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서예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예학습 희망도를 살펴보면, ‘서예는 꼭 필요하며 계속 배우고 싶다’는 학생은 20%였지만, ‘서예학습은 필요하나 배우고 싶지 않다’는 학생이 50%나 되었다. 즉, 서예학습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배우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은 것이다.

또한 서예를 하면 좋은 점으로서 학생들은 ‘집중력과 인내심이 생긴다’(39.6%), ‘글씨를 예쁘게 쓸 수 있다’(24.6%), ‘마음이 안정되고 차분해진다’(19%)로 응답하였다. 즉, 학생들 역시 서예학습의 효과로 ‘정서순화’ 및 ‘바른 글씨’의 기능을 인식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서예를 통해 미적 감각과 심미안을 길러줄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서예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서예학습의 어려움

미술과 영역 중 가장 좋아하는 영역은 ‘만들기’가 56%로 가장 많았고, ‘서예’를 가장 좋아한다는 응답은 2%에 불과하였다.

서예학습시간 선호도와 관련하여 39%가 좋아한다고 하였고, 61%가 싫어한다고 응답하였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서예학습시간을 싫어한다는 응답률이 증가하였다.(42%→68%)

서예학습을 싫어하는 이유로는 40.6%의 학생이 ‘재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학생들은 서예수업시간에 재미를 찾지 못하고 지루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7.5%의 학생이 ‘먹물이 손이나 옷에 묻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먹물이 서예를 멀리하게끔 만드는 요소인 만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캘리그라피처럼 반드시 먹물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이는 곧, 학생들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서예고유의 재료인 먹물을 그대로 활용하되, 먹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특별실을 설치하는 등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1.7%의 학생은 ‘글씨를 잘 쓰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단기간에 글씨를 잘 쓰기는 쉽지 않다. 학생들에게 무리하게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보다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3) 서예학습 실태

거의 모든 학생(88.5%)들이 학교수업시간을 통해서만 서예를 배우고 있었다. 반면, 서예학원 수강을 경험한 학생은 7.1%에 불과하였다. 즉, 학생들이 거의 유일하게 서예를 배울 수 있는 학교 수업시간을 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판본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9%에 불과하며, 궁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0%에 불과하였다. 이는 곧 서예수업시간에 서예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 초등학교 서예학습의 실태를 인식하고 대안을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4) 서예작품 감상

학생들의 55.6%가 ‘학교수업시간 교과서’를 통해 서예작품을 감상해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서예전시회에서 관람’을 한 적이 있는 학생은 13.8%였으며,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감상한 적이 있는 학생은 11.4%에 그쳤다.

미술수업에서 표현 및 창작과정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미적체험과 감상이다.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감상을 내실 있게 구성하여 서예교육의 장점인 ‘미적 감각과 조형성 향상’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Ⅲ. 결론 및 제언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서예교육의 위상 역시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십여 년 전만 하더라도 서예작품 전시도 많았고 서예학원도 성시를 이루었다. 대학에는 서예과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갈수록 서예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본 설문조사에 의하면 서예작품 전시회를 관람한 적이 있는 학생은 13%였으며, 서예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7%에 지나지 않았다. 대학에서도 캘리그라피와 전통문화를 아우르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던 서예과의 폐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서예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학교교육이 유일하다. 연구자는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예교육 실태를 분석하면서 서예교육의 현주소를 알 수 있었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88.5%의 학생이 학교수업 시간을 통해서만 서예를 접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만큼 초등학교에서의 서예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서예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전체 미술 교과 시간 대비 서예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7차 교육과정 11.7%, 2007개정교육과정 7.3%, 2009개정교육과정 6.6%로 감소하고 있다. 현 교육과정에서는 학년 당 연간 미술시간 68시간 가운데 겨우 5시간 정도만이 서예교육에 배당되었다.

결국 이런 사회변화와 교육현실 속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서예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결과, 서예는 여러 가지 특성과 장점을 갖고 있다. 우리 인간 본연의 자연성을 띠고 있는 서예에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방법과 예절을 배우는 등 인간성을 통찰할 수 있다. 문자를 소재로 창작하는 서예는 의사전달이라는 실용적 목적을 넘어 비례, 균형, 통일감, 조화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기술 습득이나 수련에 못지않게 쓰는 사람의 감성과 정신, 인격을 담아내는 것이 서예의 또 다른 특성이자 장점이다.

서예교육의 교육적 의의 또한 무궁무진하다. 우리 조상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서예를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교육현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의 인성교육에 서예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박물관

을 머금은 붓과 종이가 만나 무수한 변화가 드러나도록 자신만의 글씨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먹을 갈며 준비를 하고 한 획 한 획 정성껏 글씨를 쓰는 과정에서 차분함과 인내심, 성실성을 기쁨으로써 훌륭한 인성교육으로서의 교육적 의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도의 집중력을 통해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며 서예의 집필법과 완법을 통해 바른 자세와 심신건강 증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서예는 학교교육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현장의 서예교육에 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자는 문헌연구와 교과서분석, 서예교육 실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현 교육현실 속에서 몇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서예시간을 증배해야 한다. 88.5%의 학생이 학교 수업시간을 통해서만 서예를 접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거의 모든 학생에게 학교 수업시간이 서예경험의 유일한 기회이다. 그런데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서예시간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 현 교육과정의 서예시간비율은 전체의 7%에 지나지 않는다. 학생들이 서예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단기간에 실력을 향상하기 어렵기 때문(37.1%)인데 1년에 5시간을 학습하여 실력을 향상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서예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서예를 싫어하는 학생들(40.6%)'에게 연 5시간 수업으로 수업방법을 다양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선 시간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교사들 재량으로나마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둘째, 한문서예의 도입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현 교육과정에서는 한글서예인 판본체와 궁체를 학습하고 있다. 물론, 우리 한글서예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미의식이 깃들여 있어 전통문화 계승의 교육적 효과가 높다. 그러나 한문서예의 장점도 많다. 오랜 역사의 한문서예를 통해 다양한 한자를 아름답게 표현하면서 심미안을 형성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한자습득 또한 가능하다. 그런데 한문을 접할 기회가 없다보니 대부분의 교사가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83%) 한글만 가르치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글이든 한문이든 다 부담스럽다. 교사의 대부분이 서예교육의 효과를 인정하고 서예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인식하고 있지만, 관심은 부족하다고 응답한다. 교사들의 관심과 열정

이 서예교육 활성화의 열쇠이다. 특히, 경력이 적은 교사일수록 서예지도에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각종 연수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의 주춧돌은 바로 서예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열정이다.

셋째, 전통서예와 캘리그래피의 만남이다. 전통서예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고수하면서, 최근 영화 포스터는 물론이고 책표지, 플래카드, 각종 상품의 제품명까지 섭렵하고 있는 캘리그래피를 적절히 융합해야 한다. 손으로 쓴 아름답고 개성 있는 글자체인 캘리그래피는 재료에 구애되지 않는다. 먹과 붓은 물론, 나무젓가락, 스펀지, 면봉, 수세미까지 다양한 도구를 총동원한다. 미술과 영역 중 선호하는 영역은 만들기, 그리기, 꾸미기 순이었는데 캘리그래피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 교육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2009개정교육과정 일부 검정교과서에서는 조형미를 살려 개성 있는 글씨체로 표현하는 수업이 마지막 차시에 제시된 경우도 있었다.

넷째, 특별실을 지원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특별실이 지원되는 학교는 많지 않다. 설문조사 결과 12%만이 특별실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며, 88%는 일반교실에서 서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반교실 책상에 서예용구와 종이를 놓고 글자를 쓰기에 너무 비좁고, 붓과 베틀은 다 쓰고 난 후 씻기도 힘들다. ‘특별실 지원’은 교사와 학생들이 서예학습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인 ‘서예 재료의 준비 및 뒷정리의 어려움’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글씨 외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표현의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서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다섯째, 심미안을 기를 수 있는 서예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2009개정교육과정 미술과의 목표는 ‘미적 감수성과 직관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삶을 창의적으로 향유하며 미술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있다. 서예가 미술과에 편제되어 있는 이유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만약 서예가 의사소통의 기능이나 정서순화 또는 바른 글씨연습만을 추구한다면 서예는 미술과에서 정당성을 잃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표현 및 창작과정에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미적체험과 감상을 내실 있게 구성하여 서예교육의 장점인 ‘미적 감각과 조형성 향상’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상 연구자는 초등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서예교육을 위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서

예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현 교육현장의 어려움과 제한된 지역에 대한 조사로 인하여 본 연구의 미흡함이 많다. 그러나 본 논문이 지금 현재,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학교 서예교육의 활성화는 물론, 서예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V) (1998) 교육인적자원부 (주)대한교과서
-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V) (2008) 교육과학기술부 한솔사
-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미술 3,4,5,6학년 (2002) (주)대한교과서
- 초등학교 3,4학년 교사용 지도서 (2010) 교육과학기술부
- 초등학교 미술 3~4 지도서 (2014) (주)교학사, P.176
- 초등학교 미술 3~4 지도서 (2014) (주)금성출판사
- 초등학교 미술 3~4 지도서 (2014) 두산동아
- 초등학교 미술 3~4 지도서 (2014) 천재교과서
- 초등학교 미술 5~6 지도서 (2011) (주)교학사
- 초등학교 미술 5~6 지도서 (2011) (주)금성출판사
- 초등학교 미술 5~6 지도서 (2011) 두산동아
- 초등학교 미술 5~6 지도서 (2011) 천재교육 p.130
-
- 송하경. (2003). '서예미학과 신서예정신'. 도서출판 다운샘. p.223
- 조수호. (2005). '서예술소요'. 도서출판 서예문인화 p.69
- 김응학. (2006). '서예미학과 예술정신'. 고륜 p.12
- 장 이. (2009). '서예 미학과 기법'. 교우사 p.47 p.69 p.84
- 공상철. (2001). '중국 중국인 그리고 중국문화'. 다락원
- 정 민. (2011). '살아있는 한자교과서'. 휴머니스트
- 전규호. (2009). '서예감상과 이해'. 명문당 p.110
- 김태완. (2007). '허신의 고뇌, 창힐의 문자'. 전남대학교출판부.
- 권준범. (2005). '초등미술과 교수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P.333
- 민상덕. (1992). '서예백문백답'. 서울: 미진사, P.30
- 류정훈. (1988). '석존의 호흡법'. 경서원 p.37
- 이동민. (2011). '한국 근·현대 서예사'. 수필과 비평사
- 김희정. (2007). '서예란 어떤 예술인가'. 도서출판 다운샘
- 장 응. (2009). '캘리그래피'. 도서출판 대성

- 왕은실. (2013).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캘리그라피’. 길벗
- 길도영. (2011). ‘초등서예교육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73~83
- 김을진. (2004).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 서예영역 내용 분석 고찰’.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 김도임. (2010). ‘한글서예와 캘리그라피에 대한 연구’.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석사학위논문. p.6
- 김희정. (2003). ‘서예교육의 실태조사연구 -초등학교 5,6학년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p.17
- 권상미. (2005). ‘서예를 통한 캘리그라피의 표현이 감성디자인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 김명숙. (2001).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서예교육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 권은경. (2008). ‘서예학습과 아동 주의집중력의 상관관계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 김선영. (2007). ‘북위해서와 당해서의 비교연구’.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
- 김혜진. (2009). ‘한글서예를 활용한 캘리그라피 학습지도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p.24
- 석진영. (2006). ‘초등미술교육에서 서예를 통한 자기표현 방법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6
- 윤경숙. (2011). ‘서예가 심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0
- 김수천. (2003). ‘서예치료의 이론적 근거’. 2003 서예세계전북비엔날레 발표논문.
- 홍완표. (1999). ‘초등학교 서예교육에 관한 연구-초등학교 4,5,6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효인. (2000). ‘초등학교 서예교육의 실태조사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진아. (2008). '서예의 감성 표현을 통한 캘리그래피 활용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술대사전 용어편 한국사전연구사'. (1998)

권상호. (2004). '자연, 인간 그리고 서예'.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강좌. (사)제주도서예학회. p.2

박혁남. (2005). '한글 고전서체와 창작의 연관성'. 2005 도민과 함께하는 서화예술강좌.(사)제주도서예학회. pp.3~6

김선영. (2007) 서예교육자료집. 소정서예학원 p.4 p.10

이주형. (2012). 월간 문화재 사랑(Vol 95). 문화재청. 2012년 10월호 p.4

A B S T R A C T

An Analysis on Reality of Calligraphy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Song, Won Joon

Major in Elementary Practical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Lim, Choon Bae

Calligraphy has long been the art of self-discipline. It pursues the beauty of the world and lays importance on the relationship and decorum among people. As calligraphy wholly includes the history of our ancestors, it enables us to preserve and maintain traditional culture and establish identity. Calligraphy has its educational significance as a way of character-building. Rubbing an ink stick and writing characters earnestly helps students cultivate patience and sincerity. Furthermore, to highly concentrate on writing makes us not only feel the pleasure of immersion but it enables us to express our creative our inner-self, our state of mind, and our character.

However, the proportion of calligraphy in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has continuously decreased over the years: 11.7% in the 7th National-curriculum, 7.3% in 2007 Revised-national-curriculum, and 6.6% in 2009 Revised-national-curriculum. Of the current curriculum, in 68 hours of yearly

art classes, only 5 hours is allotted to calligraphy.

We can find the reason of decline in calligraphy's status in the change of society. With the dramatic innovation of technology and society, the population of practicing calligraphers has significantly decreased. Chances of learning calligraphy and appreciate calligraphy in exhibition has also diminished. Whether calligraphy department in University should be closed is a controversial issue. Decreasing chances on experiencing calligraphy is hindering students' and teachers' awareness on it; the skeptical doubts on the necessity of calligraphy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is thrown to education circles.

Currently, school is the only place where students can have access to calligraphy. We need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calligraphy in public school and, in the mean time, reemphasize its educational and cultural significances. Also, we need to analyze why calligraphy education in school is declining and propose solutions to stop this decline. Thus, I suggested a few problems in status quo and the schemes for improvement based on fact-finding surveys, curriculum and textbook analyzation, and research on calligraphy documents.

Firstly, the portion of calligraphy classes in elementary school's curriculum should be increased. For most students, their only chance to learn calligraphy is at school; but, as the curriculum is revised over and over, time for calligraphy has been diminished. 5 hours in a year is extremely insufficient time to improve students' capacity and diversify teaching method.

Secondly, introduction of Chinese writing calligraphy, which embraces long history and cultural identity. To learn Chinese writing calligraphy allow students' not only to learn Chinese character, but cultivate their aesthetic sense. Most teachers acknowledge the necessity of calligraphy education but their interest on it is deficient. The key for the success of caligraphy education lies on teachers' passion and experiment arisen from their interest.

Thirdly, calligraphy should be blended with handwriting. Handwriting is widely used in movie poster, book cover, and brand' trademarks. By

incorporating such various materials and expressing ingeniousness without inhibition, it is expected that one would effectively arouse students' interest and enhance their creativity.

Fourthly, exclusive classroom for calligraphy should be supported. Exclusive classroom is an effective solution to the biggest obstacle teachers and students must face teaching and learning calligraphy: difficulty of preparing and clearing materials. In exclusive classroom, students can concentrate only on writing, which dissolve students' negative perception on calligraphy.

Lastly, calligraphy education should be oriented to nurture aesthetic appreciation. Calligraphy education lacks its justification of being included in art curriculum if it only aims to communicate via characters, refine emotion, and practice writing characters. By pursuing beauty, calligraphy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cultivate 'the whole-man who can inherit and develop art and culture by comprehending objects through aesthetic sensibility and intuition and possessing opulent lifestyle'—eventual aim of 2009 Revised-national-curriculum.

In this work, I tried to analyze the realities of calligraphy education, understand its problems, and propose measures for its improvement. Though it leaves much to be desired, I hope this work would help to vitalize calligraphy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and enhance its quality.

부 록

교사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초등학교 미술시간 서예학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서예에 관한 선생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설문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자 드림

1. 성 별: 남() 여()
2. 교육경력: ()5년 미만 ()5~15년 ()15년 이상

※ 다음은 초등서예교육에 대한 설문 내용입니다. 선생님의 의견과 같거나 비슷한 문항에 √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예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필요하다. ② () 보통 ③ () 필요하지 않다.

2. 서예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 두뇌 개발 ② () 창의성 교육
③ () 전통문화 계승 ④ () 심미안 및 조형성
⑤ () 바른 글씨 익히기 ⑥ () 정서 순화 및 침착한 태도
⑦ () 기타 ()

3. 현행 미술과 교육과정 서예지도내용은 한글(판본체와 궁체)입니다. 한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 한자를 포함시켜도 좋다고 생각한다.
② () 한글만 가르쳐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③ () 기타 ()

4. 서예지도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 ① () 본인의 능력 미흡 ② () 학생들의 흥미유발
- ③ () 재료 준비 및 뒷정리 ④ () 미술실이나 특별실의 부재
- ⑤ () 서예지도 교재나 교구 지원 미비
- ⑥ () 기타 ()

5. 학생들이 서예를 기피하거나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 반복쓰기로 인해 지루함을 느껴서
- ② () 서예 재료 준비 및 관리가 불편해서
- ③ () 단기간에 실력을 향상시키기가 어려워서
- ④ () 서예를 할 때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어서
- ⑤ () 기타 ()

6. 서예지도는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 서예실 또는 특별실 ② () 일반교실
- ③ () 기타 ()

7. 학교에서의 서예 교육 지원 중 어느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특별실 설치 ② () 서예 지도 용구 지원
- ③ () 서예 지도 관련 서적 지원 ④ () 서예 교육 시간 증배
- ⑤ () 서예 교육 연수 확대 ⑥ () 기타 ()

8. 학교에서의 서예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십니까?

- ① () 미술과 교육과정에 배당된 시간 내에서 지도한다.
- ② () 미술과 교육과정에 배당된 시간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다.
- ③ () 미술과 교과 외 창의적체험활동에 포함하여 지도한다.
- ④ () 기타 ()

9. 미술과 교육과정 내의 서예지도 배정시간(약 7%)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 충분하다. ② () 늘려야 한다.
- ③ () 줄여야 한다. ④ () 기타 ()

10. 서예 지도시 학습자료는 주로 무엇을 활용하십니까?

- ① () 미술교과서 ② () 서예 체본
③ () 인터넷 ④ () 기타 ()

11. 서예 지도시 어떤 자료가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미술교과서 ② () 서예 체본
③ () 인터넷 ④ () 기타 ()

12. 아동 서예 작품을 평가하실 때 어떤 관점에 높은 비중을 두십니까?

- ① () 글자의 형태 ② () 획의 강약 조절
③ () 서체 특성 이해도 ④ () 전체적인 조화
⑤ () 기타 ()

13. 선생님의 판본체와 궁체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 잘 알고 있다. ② () 보통이다.
③ () 부족하다. ④ () 기타 ()

14. 서예 교육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 학교 수업시간 ② () 서예학원
③ () 교사연수 ④ () 기타 ()

15. 학교수업 외 서예교육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 서예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② () 서예 재료 준비가 번거로워서
③ () 서예 연수 강좌가 별로 없어서
④ () 서예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⑤ () 기타 ()

